소년단

1958. 4

김 일성 수상과 친선의 악수를 교환하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 단장 주 은래 총리

위대한 친선

우리 나라의 초청으로 주 은래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조 중 두 나라의 오랜 전통을 가진 친선 단결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이번 방문 기간에 조 중 두 나라 정부 대표단은 회담을 가지고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중요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소년단 1958년 4호 내용

조선은 조선 사람의 것이다
미군 나가라!

조선 인민은 한결 같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해방된지 13년이 가까와 오도록 아직 통일된 조국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

어찌 하루인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체할 수 있겠는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은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이며 조선에서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하는 것은 이제 곧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지금 조선 인민과 더불어 전 세계는 미국의 행동을 엄격히 겸열하고 있다.

지금 조선 인민과 더불어 전 세계는 《미군은 조선에서 물러 가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중국 인민 지원군이 금년 말까지 조선에서 전부 철거할 것을 결정한 오늘 이제는 미군과 소위 유엔군에 참가한 기타 국가들의 군대들은 남조선에 남아 있을 아무런 구실도 근거도 없다.

2월 5일 우리 공화국 정부는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며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조선 사람끼리 이룩할 데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미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2월 7일 이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조선에서 모든 외국 군대가 철거해야 한다는 것과 조선에서 중국 인민 지원군을 철거하는 문제를 우리 정부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뒤’이어 2월 19일에는 중국 인민 지원군이 조선으로부터 솔선 철거할 데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조 중 두 나라 정부의 공동 성명이 발표되였다.

우리 나라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공동 성명에는 두 나라 정부 대표단이 량국 간의 친선 및 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단결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 현 국제 정세 및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완전히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것이 지적되여 있다.

공동 성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나라 정부 대표단의 회담에서는 중요하게 남북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거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공동 성명에서는 2월 5일부 우리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내 놓은 제의들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조선 인민의 념원에 맞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 정세하에서 시기 적절하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중국 정부는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촉진시키려는 시종 일관한 립장에 기초하여 1958년 2월 7일부 자기 성명에서 조선 정부의 모든 제의들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또한 조선 정부와 협상한 후 중국 인민 지원군에게 조선으로부터 솔선 철거할 것을 제의하였다. 중국 인민 지원군은 중국 정부의 이 제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1958년 말까지 조선으로부터 계단별로 전부 철거하되 제 1 계단 철거를 1958년 4월 30일 전으로 완료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동 성명에서는 이와 같이 성명하면서 미국과 소위 유엔군에 참가한 국가들은 자기 군대들을 남조선에서 전부 철거시켜야 한다고 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극동의 평화를 공고히 하려는 조 중 두 나라의 시종 일관한 노력을 똑똑히 보여 주는 것이다.

2월 20일 쏘련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의 평화적 통일 문제에 대한 조 중 량국 정부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 성명에서 쏘련 정부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거시킬 것을 호소하였다.

이와 같이 해방의 은인인 위대한 쏘련은 항상 조선 인민의 편에 서서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조선 인민을 지지해 주고 있다.

전체 조선 인민은 조 중 두 나라 정부의 공동 성명과 이와 관련한 쏘련 정부의 성명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이 성명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대한 쏘련과 중국은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사회주의 나라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이 조 중 량국 정부의 성명과 이와 관련한 쏘련 정부의 성명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인도의 한 신문은 《조 중 량국의 결정은 인도 인민과 국가의 독립적 주권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쁨을 주었다》고 썼으며 영국의 신문 《데일리 워커》는 《미군은 조선에서 물러 가라!》고 웨치고 있다.

조선에서의 평화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이를 가로 막고 있는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물러 가는 문제만이 남아 있다.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에게는 오직 물러 가는 길이 있을 뿐이다.

미군은 남조선에서 물러 가야 한다.

지금 전 세계는 조선 인민과 함께 미국의 행동을 엄격히 겸열하고 있다.

중국 정부 대표단은 공동 성명에서 《중국 인민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범에 대하여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결코 수수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부질 없는 발악과 음모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더 큰 타격을 받고 파탄될 것이다.

지금 전쟁을 꿈꾸는 세력보다 비할 수 없이 강한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나라들과 또한 평화 애호 인민들이 우리 편에 튼튼히 서 있다. 때문에 조선 인민의 평화적 조국 통일을 가로 막을 자는 없다.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한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강력한 지지 성원을 받고 있는 우리 조선 인민은 반드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고야 말 것이다.

조선은 조선 사람의 것이다
미군 나가라!

사회주의 락원에서 우리는 살게 된다!

항상 로동당은 우리 인민들을 승리와 행복에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로동당은 이번 1차 대표자회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우리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던 조선 로동당 제 1차 대표자회에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 경제 발전 제 1차 5개년 계획과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습니다.

로동당 제 1차 대표자회는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을 더욱 크고 새로운 승리에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사회주의 락원이 내다 보입니다. 로동당은 그 곳으로 우리 인민들을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래일을 밝혀 주는 1차 5개년 계획은 제 3차 당 대회가 내놓은 기본 방향에 튼튼히 서서 사회주의 경제 기초를 튼튼히 하는 동시에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목표로 내 세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일이 없고 전체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베풀어 주는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우리들을 더 잘 입고 더 잘 먹으며 문화적인 집에서 살게 할 것을 내세운 1차 5개년 계획! 이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 처음되는 일입니다.

1차 5개년 계획은 우리들을 사회주의 락원으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61년에 가서 우리들이 얼마나 잘 살게 되는가를 살펴 봅시다.

로동자, 사무원들과 농민들의 수입이 1.5 배로 많아지며 인민들을 위한 수 많은 각종 생활 필수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입을 옷감은 2.3 배로 많이 짜냅니다. 이것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한 사람에게 18메터의 천이 차례지리만큼 많은 것입니다. 내의류도 3.6 배로 많이 차례지게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입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쌀은 376 만톤 이상 생산하게 되니 걱정 없고,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기타 식료품을 2.6 배 이상 만들며, 물'고기를 62만톤 이상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먹는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 집도 많이 짓게 됩니다.

5개년 계획 기간에 국가 자금으로 1천만 평방메터(30만호)의 집을 지으며 농촌에서는 20만호 이상의 집을 짓게 됩니다. 이 집들은 사회주의 건설자들인 인민들이 살기 좋고 모양도 좋고 편리한 문화 주택들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인민들을 위한 교육 문화 보건 사업도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평양에 체육 대학, 원산에 교원 대학을 새로 세우며 전반적 초중 의무 교육제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상점, 식당을 많이 늘쿠고 일을 잘 함으로써 인민들이 중간 착취를 받지 않고 편리하게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앞날은 행복과 기쁨으로 차 있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결같이 옳바른 정책을 실시해 온 로동당이 있으므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로동당이 사회주의 건설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만일 경제 토대, 지하 자원 등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물론, 보다 더 행복한 사회주의 락원을 내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천을 많이 짜는 것도, 물'고기를 잡는 것도, 쌀을 많이 내는 것도, 공장과 집을 많이 짓는 것도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천을 많이 짜자면 실과 천 짜는 기계가 많아야 하지요, 실을 많이 만들자면 화학 섬유도 만들어야 합니다. 천 짜는 기계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선철, 강철이 필요하며 기계를 만드는 기계가 필요하지요.

공장과 집을 많이 짓기 위하여서는 쎄멘트가 많아야 하지요. 김 일성 수상님은 쎄멘트는 많을수록 좋다고 하시였습니다. 산 많은 우리 나라의 골짜기마다를 쎄멘트 콩크리로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면 논 풀어 벼농사 지으니 좋고, 배 띄워 배'놀이도 좋고, 고기를 쳐서 좋고 저수지 물로는 전기도 일으켜 쓰니 좋다 고 하셨답니다.

선철, 강철, 기계, 전력, 석탄, 배, 비료, 쎄멘트, 화학 섬유…이것을 생산하는 중공업의 발전 없이 우리의 행복한 생활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로동당은 조국의 장래와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계속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였습니다.

앞으로도 천만번 정당한 이 길을 따라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부문은 2.6배로 발전시키게 되였습니다.

1961년에 가서 우리 나라에서는 전력 97억 키로와트시 이상, 석탄 950만 톤 이상, 쎄멘트 175만 톤 이상, 럽철 20만 톤 이상, 선철 70만 톤 이상, 강철 67만 톤 이상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나라는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인민 경제를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발전된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게 됩니다.

현재 벌써 우리 나라의 석탄 총 생산량은 이태리를 훨씬 앞섰는데, 5개년 계획 기간에 전력, 선철 등의 인구 1인당 생산량은 이태리를 따라 잡으며 전력, 선철, 석탄, 쎄멘트의 인구 1인당 생산량은 일본을 따라 잡으며 앞서게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똑똑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국과 인민의 리익에 꼭 들어 맞는 1차 5개년 계획을 완수하면 우리들은 틀림없이 사회주의 락원에서 의식주에 대한 근심을 모르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5개년 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것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는 남반부 인민들을 더욱 힘차게 일떠서게 할 것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로동당 제 1차 대표자회는 우리 조국과 인민들에게 빛나는 앞날을 약속하는 1차

5개년 계획을 일치하게 찬동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당하고 정확한 당 정책을 지난 시기 반당 종파 분자 최 창익, 박 창옥 도당들은 잘못 되였다고 헛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출세와 높은 자리를 탐내여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당을 파괴하려고 날뛰였던 것입니다.

로동당 제 1차 대표자회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로동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중요하게 토의하였습니다.

우리 로동당은 제 3차 당 대회의 결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였으며 전체 근로자들은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굳게 뭉치였습니다. 이번 대표자회는 이것을 남김없이 시위하였습니다.

로동당이 강화되고 당 주위에 전체 근로자들이 굳게 뭉친 결과 그 어떤 힘으로도 로동당이 나가는 승리의 길을 막을 수 없게 되였습니다.

대표자회는 오래 동안 당을 반대하여 종파를 논 최 창익 도당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당의 통일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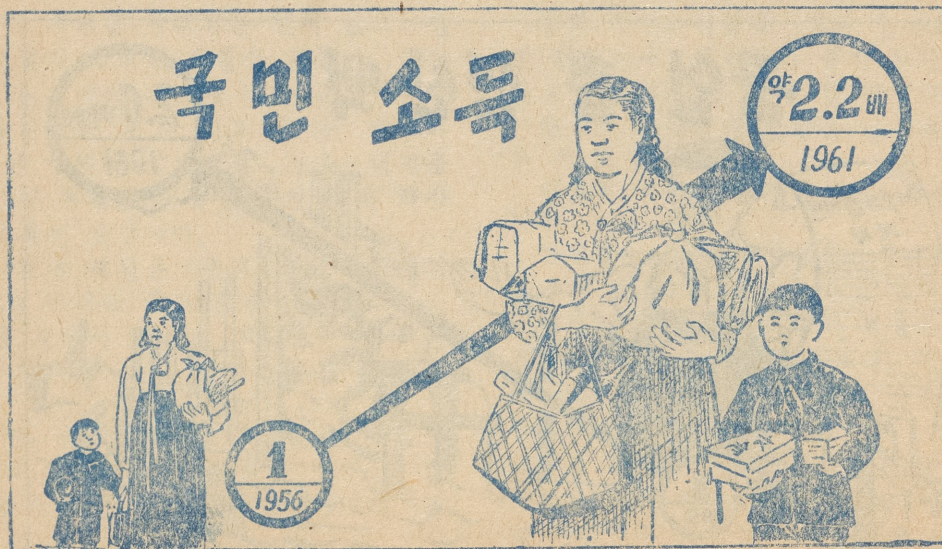
로동당 제 1차 대표자회는 우리 조국을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더욱 빨리 가져 오기 위하여 로동당을 조직적으로 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체 로동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당 대표자회의 결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힘찬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로동당원들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면서 《절약하여 증산하자》 라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1차 5개년 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하여 전체 근로자들의 앞장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잘 하면서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적극 도와야 합니다.

농촌에 사는 소년단원들은 개인 농민들이 마저 협동 조합에 들도록 어른들을 도우며 농촌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문화적으로 꾸리는 일도 적극 도웁시다.

도시에 사는 소년단원들은 개인 상공업자들이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서도록 계속 도우며 도시와 공장 건설을 돕는 등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많이 찾아 합시다.

이것이 곧 소년단원들이 로동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로동당원 아저씨들의 애국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최고 인민 회의 제2기 제2차 회의에서

지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이에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2차 회의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세 가지 의안이 토의되였다.

첫째는 1956년도 우리 나라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과 1958년 나라 예산에 관한 문제가 심의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1956년도 우리 나라의 국가 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되고 그 결산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1958년도 나라 예산안도 우리의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정확하게 편성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예산이 다른 자본주의 나라나 남조선의 리 승만 괴뢰 정부 예산과는 달리 1958년의 예산 수입에서도 거의 다가 사회주의 경리에서 들어 오는 것이고 인민들에게서 받은 세금 수입은 아주 적게 되여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을 쓰는 데도 나라의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며 문화 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로 돌려졌다.

이것은 실로 우리 나라가 인민의 나라이며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그야말로 인민들의 행복과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한 인민적이며 평화적인 시책을 베풀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는 이 문제에 대한 심의를 그치고 1956년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함에 관한 결정과 1958년 나라 예산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로 국제 긴장 상태를 늦추며 세계의 평화를 위해 쏘련 최고 쏘베트와 쏘련 정부가 취한 결정과 제의들과 관련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원자 및 수소 무기의 실험과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하며 모든 국제 문제를 회담의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끊임없이 애쓰는 쏘련 최고 쏘베트와 쏘련 정부의 제의들이 우리 나라의 평화 정책과 일치하므로 전'적으로 지지 찬동하였다.

회의에서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세계의 평화와 인민들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새 전쟁 준비에 미쳐 날뛰고 있는 미제의 책동을 폭로 규탄하였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모든 국제 문제들과 같이 조선 문제도 반드시 협상과 회담의 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하며 미제 침략자는 조선에서 즉시 물러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회의는 둘째 문제에 대하여서도 최고 인민 회의 결정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회의에서는 지난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1차 회의로부터 이번 제 2차 회의까지 사이에 채택된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들을 승인하고 폐회하였다.

레닌에 대한 이야기

◇리 기 영◇

1955년 12월 말에 조쏘 문화 협회 대표단은 독일—쏘련, 친선 협회의 초청을 받고 형제 국가 독일을 방문한 바 있었는데 돌아 오는 길에 모쓰크바에서 약 한 주일 가량 머물러 있었다. 12월 31일 오후 다섯시—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레닌 묘를 참묘하게 되였다.

그것은 오후 다섯시부터 참묘를 허락하였기 때문이다.

그 날은 매우 추웠다. 눈보라까지 치는 령하 30도의 혹한이였다.

우리가 숙소에서 그 곳에 도착한 시간은 불과 10분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웬 일일가! 숙소를 떠날 때 우리는 누구 보다도 선참으로 레닌 묘를 참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약 500 메터 가량 량줄로 늘어선 군중들의 뒤에 가 서게 되였다.

그 때 나는 다시 생각하였다. 인류의 위대한 수령을 한없이 존경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심정은 그들 뿐만 아니라 지구상 선량한 인간들의 공통된 마음이라는 것을!

눈보라 속에서도 붉은 광장을 둘러싼 주위의 건물에서 비치던 《싸찌라이트》의 광선으로 하여 위인의 묘는 더 한층 유달리 빛났다.

약 30 분 후에 우리는 릉묘 문 안에 들어 섰다.

위대한 수령이 고이 잠드신 그 곳으로…

발은 더 무겁고 숨 소리도 조용히 몸가짐도 단정하게… 계단을 하나 둘 내려 가니 레닌 선생의 영상은 나의 눈 앞에 나타났다. 그 순간 나의 머리에는 바로 그 전날 견학한 레닌 박물관의 이모 저모가 떠 올랐다.

《네가 자라면 공산주의자가 되지!응?》.

어린 시절에 울라지미르 일리이츠에게 타이르시던 위인의 어머님의 말씀…

소년 시절에—사랑하는 형님이 짜리 황제 제도를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레닌은 누이 동생을 껴안고 《울지 마라! 울어서는 안돼! 때가 오면 모든 일에 대하여…》라고 하던 그 모습도…

당시 형이 황제 로씨야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왕을 암살하는 방법으로 승리를 얻으려 한 것은 과오이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자신 밑에 《아니다. 우리는 그런 길로 나가지 않을테다. 그런 길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결의하는 모습도 눈 앞에 그려졌다.

그의 청년 시절에 볼가강에서 낯 익은 《아낌》 로인을 만나서 담화하시던 일화도 머리에 떠 올랐다.

《아낌》 로인은 월로쟈 (울라지미르의 애칭)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네네 촌 사람들을 보았나?!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는 것 갈네! 굶어서 팅팅 부었지… 승냥이들처럼 고함치지… 어린애들은 나무 껍질을 베끼지…허나 무엇으로 그들을 도와 주겠나? 무엇으로 말이야? 그런걸 보면 이런 진저리 나는 세상에서 나는 멀리 도망치고만 싶네!》.

로인은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었다. 잠시 후 그는 한숨과 함께 신음 소리를 크게 내였다.

그것은 월로쟈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였고 바늘로 쑤시는 것 같았다.

로인은 자기 말로 《허—그만 두게. 그만 둬. 눈물이 도와 주는 일이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자 《아낌》 로인은 거인과 같이 우뚝 일어서더니 떨리는 주먹을 쥐여 도시 쪽으로 내흔들면서 저주에 찬 욕설을 퍼부었다.

《에키 야수들 같으니!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제놈들은 밀 창고에 쇠를 잠그고 있어! 개자식들 같으니, 굶은 사람들이 빵쪽 하나를 얻기 위해 고대하고 있지! 으흠 거저 내가 그 놈들을…》. 월로쟈는 분노의 가슴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예이! 하고 뽀트에 올라타고 힘껏 노를 저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용감하라! 형제여
먹구름 뭉게치면
산악 같은 격랑이
들 끓어 솟으리라!
성난 파도 길길이
하늘을 치받으며
천길 나락 속으로
무너져 내리리라.

그러나 파도는 실어
간다네
다만 마음 굳센 이
만을 저 언덕으로—
용감하라! 형제여
폭풍을 안고
팽팽한 나의 돛은
쏜살같이 달린다.
그가 사랑하던 그
노래도…

1917년 혁명 직후 심히 곤난한 환경 속에서의 레닌의 모습도 련상되였다.

《어떻게 할가요? 우리에게는 사탕 부스러기도, 흘레브 쪼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두 컵의 차와 소금 그릇이 놓여 있는 상을 어떻게 울라지미르 일리이츠에게 가져다 드리겠어요? 그 이는 매우 시장하실텐데》.

라고 식당 책임자인 《마냐》는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병사가

《그럴 수야 없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울라지미르 일리이츠가 시장하셔야 되겠습니까?》.

하고 배낭의 빵을 절반 짤라 식당 책임자에게 주었다.

잠시 후 레닌의 온 방이 울리게 큰 소리로 《친애하는 동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 있는 병사들의 식빵을 아직 나는 먹어 본 일이 없습니다. …》 하는 말씀이 들리였다. 그 때 그 병사는 어쩔 바를 몰라 하면서

《레닌이 참 그런 분이시더랬구나… 친절한 분이야! 사소한 일에 대해서 그처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다니! 참 울라지미르 일리이츠는 우리 사람이야!》. 나는 이와 같이 검박한 위인의 생활 모습이 또한 상기되였다.

공산당원 약트에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라는 란에 두 글'자 《혁명》이라고 기록된 레닌 선생의 당 문건 등도 마치 영화의 화면과도 같이 나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혁명을 위하여 탄생하였고 혁명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위인의 령구 앞에서 굳은 맹세를 나는 다지였다.

그렇다! 레닌이 가르치는 길로… 그의 진리의 길로 끝까지 용감히 나아가자…

그를 향하여 더욱 열심히 배우자!

온갖 몹쓸 것, 야비한 것, 나쁜 것에 대한 타협 없는 투쟁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충성, 겸손한 마음,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 혁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위대한 인간 정신을 배우자!

참묘를 끝마치고 릉묘를 나오니 크레믈리 성벽 탑 시계는 6 시 20 분을 알리였다.

바깥은 계속 눈을 뜰 수 없는 세찬 눈보라와 혹심한 추위가 몰아치고 있다.

그러나 그칠줄 모르는 참묘자들의 대렬은 계속 길게 길게 련달아 있었다.

그 중에는 네댓살씩 먹은 어린 손자를 안은 로인들도 있었다.

얼마 전에 《소년단》 편집부로부터 김 일성 원수께서 지도한 항일 유격대의 투쟁 이야기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의 한 전사였던 나는 지난 날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 많은 투쟁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 때의 태산 같은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 ×

우리 항일 유격대는 처음부터 충분한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은 아닙니다. 무기, 식량, 피복, 그리고 유격 근거지를 자기 손으로 투쟁을 통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유격대는 직접 악독한 일제놈들과 용감히 싸웠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싸워야 했겠습니까? 로동자, 농민의 아들 딸들인 우리 유격대가 자기 손으로 무기와 탄약을 만들며 또는 원쑤에게서 빼앗아서라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방을 달성할 수 없으며 계속 일제의 노예로 무서운 천대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공산주의자로서 우리나라 혁명 운동의 선두에 서서 김 일성 원수의 지도 하에 단결된 힘으로 일제를 무찌르고 조국의 독립을 찾기 위하여 싸웠습니다.

우리 유격대는 비록 처음에는 적은 힘, 적은 무기였으나 날을 따라 강대한 유격대로 자라나서 가는 곳마다에서 용감히 싸웠으며 그 투쟁 속에서 조국 해방의 날을 맞았던 것입니다.

× ×

우리 유격대가 전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제작한 무기 탄약중 《작탄》은 그 효과가 컸던 것입니다. 작탄은 화약 속에 보습을 까 섞어서 함석통에 넣어 철사로 동이고 도선 (심지)에 불을 붙이여 터뜨리게 되여 있는 것인데 폭발 소리가 대단히 요란했습니다.

야밤에 《경비대》, 《자위대》 등을 습격할 때 이것을 터뜨리여 놈들을 혼란에 빠뜨리군 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유격대는 계획 대로 적들을 처단하고 인민들을 구원하군 하였습니다.

우리 유격대가 조직된 시초 연길에서 약 20 리 떨어진 소양지강 옆 부락에서 한 전투도 그런 것이였습니다. 우리 유격대는 갑자기 부락을 습격하여 일본놈들과 그의 앞잡이들을 청산하고 주민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유격 투쟁이 강해지자 원쑤들은 갖은 방법을 다하여 우리 유격대를 《토벌》하려고 날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격대는 도처에서 활동을 계속 확대했습니다. 원쑤들은 우리 유격대의 세력이 커지는 것은 주민들이 유격대를 도와 주기 때문이라고 야단쳤습니다. 놈들은 우리 유격대를 인민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하여 주민들의 집을 불사르고 강제로 주민들을 토성 속에 몰아 넣기 시작했습니다.

벼 모종이 한창인 때 새벽부터 토성 쌓기에 주민들을 동원하였습니다. 주민들은 《금년에는 한 알의 쌀도 구경해 보지 못하게 됐군》 하며 놈들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이 소식이 유격대에 알려지게 되자 김 일성 원수께서는 놈들의 이 기도를 파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1 중대장 아저씨 외 4 명의 유격대원들을 파견했습니다.

유격대원 아저씨들은 지방 주민으로 가장하고 새벽부터 강제로 동원된 주민들 속에 들어 갔습니다. 아저씨들은 싸창과 작탄 등을 감추어 가지고 버르고 있던 중에 졸다싶이 하는 보초놈의 눈을 피하여 《자위대》 집합 장소에 갔습니다.

유격대원 아저씨들은 분공한 대로 단장실과 《자위대》원실에 불의에 들어가 《손들엇!》 하고 총을 겨누었습니다. 끔짝 못하고 벌벌 떠는 단장놈과 앞잡이 몇 놈을 그 자리에서 처단해 버리고 강제로 끌려 나온 《자위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다 우리와 같은 가난한 로동자, 농민의 자식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인민에게 고통을 주는 〈자위대〉에 참가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로서 악독한 일제와 지주, 자본가를 격멸하기 위하여 나섰습니다. 다시는 이런 못된 〈자위대〉에 참가하지 말고 인민을 위하여 나서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인민들로부터 처단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고 웨치니 끔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격대원 아저씨들은 급히 놈들의 무기 20 여 자루를 빼앗아 가지고 예정된 지점에 왔습니다

놈들은 그 때야 야단났다고 떠들었습니다. 유격대원들을 인솔한 1 중대장 아저씨는 통쾌한 기분에 유명한 목청으로 새납 소리를 내며 기지에 돌아왔습니다.

이 때 1 중대장 아저씨는 혼자서 10 여 자루의 총을 메고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획한 무기는 원쑤놈들을 무찌르는 싸움에 귀중히 리용되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마을의 소식을 들었는데 놈들은 《자위대》를 다시 찾아 다니느라, 경비를 강화하느라 하여 부역은 중지되였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통쾌해 하면서 유격대만이 인민의 편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고 놈들의 탄압이 심해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였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큰 력량이 못되였으나 이런 투쟁을 통하여 우리 유격대의 력량을 강화하였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유격대가 동만 일대로부터 무송을 거쳐 그리운 조국 조선에 보다 가까운 장백에 이르렀을 때 장백 주민들이 김 일성 원수 유격대에 대한 지지와 기대는 더욱 컸던 것입니다. 도처에서 찾아 온 주민들은 때로는 김 일성 원수를 옆에 모시고도 누군지 잘 모르고 《아마 김 일성 대장은 축지법 (땅을 주름 잡는 것)을 쓰는 장수에 틀림 없어.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묘하고 대담하게 일본놈들을 때려 부실 수 없지!》 등등 이야기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런 때마다 김 일성 원수는 결코 《장수》나 《신》이 일본놈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단결된 로동자, 농민들이 무기를 들고 싸울 때만이 승리할 수 있으며 조국의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을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백에서는 수 많은 청 장년들이 유격대에 참가하였고 또는 조국 광복회 회원으로서 유격대를 후원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유격대는 장백을 근거지로 하여 조국 보천보에 진군한 것을 비롯하여 수 많은 전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황한 적들은 화풀이로 유격 지구의 로인, 청년 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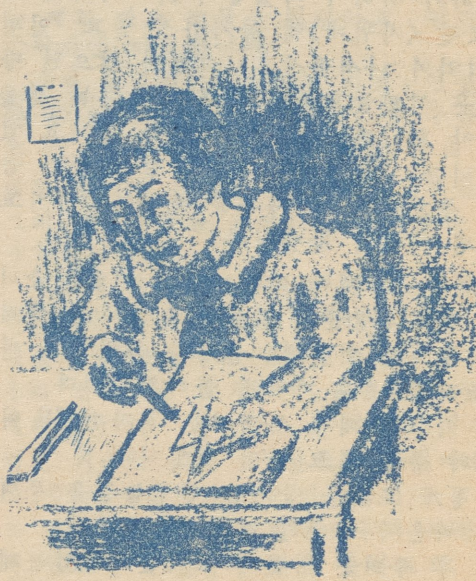
이때 조국 광복회 회원이였던 김 용석 아저씨도 유격대를 돕는다는 리유로 경찰에게 끌려 가게 되였습니다. 아저씨는 끌려 가면서 곰곰히 생각했습니다.

(끌려 가서 개 죽음을 하는 것 보다는 유격대에 가담하여 싸워야 한다)고 결심을 굳게 한 아저씨는 주머니에 든 사랑하는 빼투칼 (날이 뾰족하게 선 작은 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같이 끌려 가던 한 로인이 뒤 (대변)를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한 명의 경찰은 할아버지를 지키느라고 떨어졌습니다. 한 놈만이 용석 아저씨를 따라 오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용석 아저씨는 뒤에 떨어진 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빼투칼로 바'줄을 끊고 놈에게 덤벼 들었습니다. 당황한 놈은 어쩔 수 없이 용석 아저씨에게 깔리우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그 놈을 처단하고 그 놈의 무기를 얻었습니다. 아저씨는 곧 그 길로 유격대를 찾아 왔습니다.

이 때부터 유격대 내에서는 김 용석 아저씨를 빼투칼 령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유격대는 인민의 리익을 위해 싸웠고 인민은 유격대를 지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체 소년단원 동무들도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이런 투쟁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소년단원 동무들이 이 뜻을 본 받는 것은 항상 건강한 몸으로 학습과 소년단 사업을 잘 하며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빛내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산수 공부》

무산 11중 학교 인민반 3학년 문 선옥 그림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자!

◇ 민청 중앙 위원회 학생 소년 부부장 최 윤 호 ◇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제 1차 5개년 계획의 첫해를 찬란한 승리로 빛내인 것처럼 우리 소년단원들은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에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였다.

소년단원들은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책을 받들고 자기의 기본 임무인 학과 학습을 훌륭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꼬마 선전원으로서 자기 집과 농업 협동 조합에서 당의 결정을 선전하며 부모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또한 《꼬마 선전원》들은 학교에서 배운 자연 과학 지식을 부모들에게 제 때에 선전하였으며 미신의 비과학성도 훌륭히 폭로하였다.

많은 소년단원들은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김 일성 원수의 혁명 활동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애국 전통을 연구하는 사업과 잘 결부함으로써 혁명 투사들의 애국 정신을 본받았다.

소년단원들은 애국 렬사들의 분묘를 미화 정리하며 력사적 문화 유물을 보호하는 사업들도 훌륭히 진행하였다.

이리하여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통하여 소년단원들은 자기의 고향 마을과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굳게 다지였다.

다음으로 소년단원들은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을 통하여 더욱 굳게 다지였으며 학교의 기본 생산 기술 교육을 방조하는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많은 학교 대 분단에서 기술 크루쇼크 사업을 흥미 있고 재미 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의 실험 실습을 위하여 수 천 개의 공작 도구, 실험 기구, 괘도들을 갖추었으며 실습지에서도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였다.

온천 제 1 중학교 식물 크루쇼크원들은 학교 실습지에서 벼, 옥수수, 밀, 대마 등 21종의 알곡 및 공예 작물과 사탕무,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에서 지난 해에 거둔 커다란 성과

배추 등 13종의 채소류를 재배하였다. 이들은 품종들을 개량하는 데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는 바 옥수수의 백색 마치종과 황색 잡종을 인공 수분하여 새로운 종자를 생산하여 근방 농업 협동 조합에 제공하였다.

녕원 3중 학교 소년단원들은 돼지와 토끼를 사육하여 그를 번식시켜 무축 농가들에 나누어 주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소년단원들이 학교에서 배운 자연'과 학습에 대한 훌륭한 실습일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농업 로동에 대한 사랑을 가지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다음으로 소년단원들은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학교와 집 주변을 늘 청소하며 화단과 공원을 가꾸는 일도 많이 하였다. 이와 함께 소년단원들은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체육 경기회, 조기 체조들을 꼭꼭 진행하는 한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파리, 쥐, 모기, 게, 가재 등을 잡아 없애는 등 위생 방역 사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

전체 소년단원들은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통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궐기한 부형들의 일'손을 도우며 자기들의 힘에 맞는 가지가지 사업으로써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

소년단원들은 자기 집과 농업 협동 조합을 도와 모내기, 김매기, 탈곡 사업들에 힘껏 참가하였고 해충을 구제하며 해조를 잡아 없애는 일도 많이 하였다.

또한 소년단원들은 애국 렬사 가족들과 인민군 후방 가족 원호 사업, 식수 사업, 소년단 보호림, 꼬마 과수원 설치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소년단원들은 지난 해 유지 작물 재배에서 피마주, 해바라기를 수백 톤 수확하여 국가에 수매시켰으며 수세미 오이, 오미자 등 각종 식물 채취와 파철, 파고무, 파지 등 많은 폐물들을 회수하여 국가에 수매시키므로써 나라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

이와 같은 활동 과정에서 소년단원들은 로동의 영예를 알게 되였으며 로동을 즐기며 국가 재산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게 되였다.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으로 소년단 사업은 더욱 내용이 풍부하고 활기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많은 소년단 단체들은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통하여 소년단의 훌륭한 전통을 세우며 다채롭고 흥미 있는 사업들을 많이 조직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 자만하여서는 안된다.

금년에도 많은 성과들을 약속하는 훌륭한 일들이 소년단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겠는가?

소년단원들은 《꼬마 5개년 계획》 활동 요강에 제기된 모든 사업들을 다 잘해야 할 것이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사업에 주의

를 돌려야 하겠다.

금년도에는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통하여 소년단원들은 로동 과정에서 배우며 자기를 단련하는 데 첫째 주목을 돌려야 하겠다.

소년단 대와 분단에서는 방과 후와 일요일 또는 방학 동안을 리용하여 집체적으로 농업 협동 조합 일'손을 도우며 애국 렬사 가족과 인민군 후방 가족 원호 사업, 공장, 기업소, 건설장 등 생산 현장에서 직접 자기 힘에 맞는 로동에 참가하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소년단원들은 《꼬마 선전원》의 역할을 높이며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결정과 보건 위생과 과학 지식을 인민들 속에서 선전하는 사업을 잘 하여야 하겠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기 절약을 위한 사업에 소년단원들은 조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소년단 단체들은 힘에 겨운 많은 일들을 벌려만 놓지 말고 금년도에는 지방과 학교 사정에 알맞는 일들을 찾아내여 그것을 실천하는 데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다.

소년단원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피마주, 해바라기 등 유지 작물 재배, 토끼 기르기, 심어 놓은 나무들이 잘 살도록 돌보는 사업, 파지, 파고무 회수 사업 등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

다음으로 소년단원들은 자기 몸을 깨끗이 함은 물론 농촌 문화 건설에 나선 부모들과 민청원들을 도와 자기 집과 학교 주변, 거리와 마을을 청결하며 파리, 모기 등 곤충들과 게, 가재 등 병균을 매개하는 동물들을 잡아 없애는 사업을 광범히 진행하여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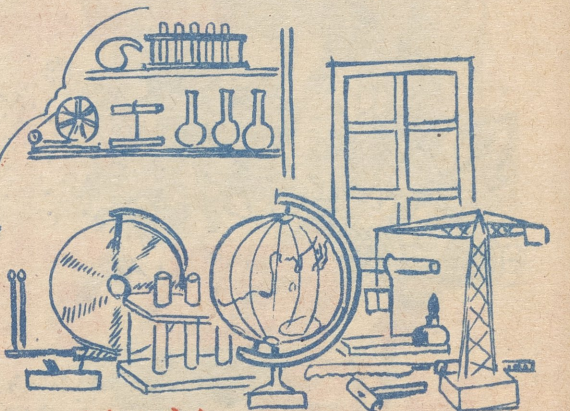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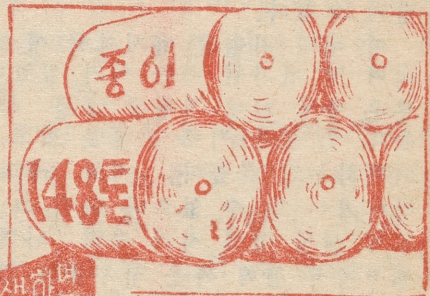
이러한 사업들을 잘 하기 위하여서는 소년단 조직을 튼튼히 하며 열성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소년단 대와 분단에서는 각종 모임과 벽보, 포스타, 그림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활동을 왜 하여야 되며 거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철저히 알려 주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훌륭한 일들을 진행한 후에는 반드시 흥미 있고 다채로운 총화 사업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소년단원들의 애국적 열성이 깃든 가지가지의 자랑들을 그들 자신이 똑똑히 알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년단 대와 분단들에서는 이 활동 실행에서 모범적인 소년단원들에게 대와 분단 대렬 앞에서의 찬양, 대 기'발 앞에서의 사진 촬영 등 방법으로 표창 사업을 잘 진행하여야 하겠다.

이리하여 금년도의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도록 다같이 힘써 나아가야겠다.

(작)(문)

(고)(마)(운)(중)(국)(인)(민) (지)(원)(군)(아)(저)(씨)

점점 날씨가 풀리며 언 땅이 녹아서인지 골목 길은 여간 진탕이 아니다.

동무들과 함께 반간첩 투쟁 전람관에서 나온 나는 뻐스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동무들과 헤여져 신작로에 나왔다.

여기저기에서 아파트를 새로 짓는 로동자 아저씨들의 모습이 눈에 띄운다.

오늘도 국영 상점은 수 많은 사람들이 물건 사러 들락날락하여 여간 흥성거리지 않는다. 어느새 뻐스 정류소에 당은 나는 뻐스를 기다리며 신발에 묻은 흙을 털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어느새 오셨는지 내 뒤에는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 한 분이 1학년 학생들의 손목을 잡고 와 계셨다. 아저씨는 웃으면서 애들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였다.

나는 지원군 아저씨를 보자 인차 인사를 하였다.

방금 뻐스가 왔다 갔는지 내가 기다리는 뻐스는 얼마 후에도 오는 기척이 없어 나는 목을 길게 뽑고 아래 쪽을 살펴 보았다.

이 때에 지원군 아저씨의 어깨를 탁 치며 막 반가워 하는 이가 있었다. 그 분은 중국 인민 지원군 군관 아저씨였는데 두 분은 서로 손목을 잡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랐다. 서로 주고 받는 이야기는 알 수 없으나 아마 그 분들은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우리 나라 어느 고지에서 함께 싸운 전우들인 것이라고 생각되였다. 우리가 기다리는 뻐스가 멀리에서 보이자 우리는 다시 순서 있게 한 줄로 섰다.

이 때에 웬 할아버지가 뻐스를 놓칠가 바 정류장으로 막 달려 오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였다. 이 광경을 보신 두 지원군 아저씨는 누구보다도 빨리 가서 할아버지를 일으키시고 어디 상한 데가 없느냐 하는 시늉을 해 보였다. 수염'발이 희숙 희숙한 할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는데 지원군 아저씨들은 얼른 손'수건을 꺼내서 할아버지의 두루마기에 묻은 흙물을 닦아 주시는 것이였다.

할아버지는 너무도 고마워 지원군 아저씨들의 손목을 번갈아 잡으시며 《이 사람들 고맙네 고마워》하고 연신 감탄하시는 것이였다.

뻐스에 올라서도 지원군 아저씨들과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는 나의 머리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 올랐다.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은 저렇게 조선 사람들을 자기의 부모 형제 처럼 사랑하누나.

나는 자기 목숨으로 우리 나라 어린이의 생명을 구원한 라 성교 아저씨도 마음 속에 그려 보며 조중 인민의 친선은 영구 불멸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에 대한 고마운 생각이 커 가면 커 갈 수록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며 남반부 인민들을 불행의 구렁이로 몰아 넣고 있는 미군놈들에 대한 증오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얼마 후에 줄달음치던 뻐스가 우리 집—새 아빠트 앞에서 멎었다. 나는 뻐스에서 내리면서 지원군 아저씨들에게 《안녕히 가십시요》하고 공손히 인사를 하였다.

청진 제 5 중학교 제 1 학년 4반

박 영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 정렬◇

나가자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용감한 기세로
....

소년단원들은 영광스러운 항일 유격대 아저씨들이 원쑤들과 용감히 싸우면서 부르던 노래를 기운차게 부르며 항일 유격 투사이신 조 도언 선생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김 일성 원수의 항일 유격 투쟁의 혁명 전통을 배워 온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 혁명 투사와의 뜻깊은 상봉을 가지게 된 것이 무한히 기뻤습니다.

조 도언 선생님은 소년단원들을 빙 둘러 보시며 한사람 한사람 어루만져 주듯이 인자한 미소를 보내고는 《나는 이처럼 사회주의 조국의 앞날의 주인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더 없이 기쁩니다》라고 하시면서 김 일성 원수의 지도 밑에 항일 유격대가 일제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던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항일 유격 부대는 날이 갈수록 자라났으며 강하여져 갔습니다. 이리하여 유격 부대는 가는 곳 마다에서 원쑤들을 쳐부셨고 인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유격 부대에 대한 〈토벌〉과 인민들에 대한 놈들의 탄압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몸바친 유격대원들은 어떠한 곤난이라도 이겨내면서 원쑤 놈들과 용감히 싸웠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하여 연길현 노두구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1934년 눈보라 사나운 추운 겨울이였습니다. 조 도언 선생님이 지휘하는 1중대는 노두구를 습격하고 원쑤놈들을 처단한 후 무기를 빼앗을 데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토성을 높이 쌓은 집단 부락인데다가 놈들의 경비가 심한 이곳을 습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조 도언 선생은 심중히 생각한 끝에 중대는 노두구 강을 건너 강 천보산 밑에서 기다리게 한 후 7명의 전우들과 먼저 정찰을 떠났습니다.

일본 군인복에 놈들의 무기를 가진 유격대 정찰원들은 왜놈의 보초를 깜쪽같이 속여 넘기고 왜놈 수위대 실에 들어 갔습니다. 조 도언 선생님이 재빨리 연길

폭탄을 뽑아 던졌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것을 신호로 뒤'산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격대원들이 일제히 진격하여 놈들을 포위했습니다.

손 쓸 새도 없이 별안간 포위를 당한 놈들은 어쩔줄 모르고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유격대원들은 삽시간에 수십 명의 적들을 처단하고 놈들의 창고에서 얻어낸 식량들과 물품들을 인민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그 곳을 떠나왔습니다.

눈보라가 천지를 휩싸는 동북의 넓은 벌판에서 휴식도 잊은채 원쑤들과 용감히 싸우던 유격대원들의 가지가지의 이야기를 듣는 소년단원들은 원쑤들을 미워하고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만 있으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조 도언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지주놈의 집에서 머슴으로 학교라고는 문 앞에도 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쓰라린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난 선생님은 마음껏 배우며 즐기는 우리 공화국 소년들은 참말 행복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항일 유격 투사들은 사회주의 조국—바로 이것을 위해 갖은 곤난 속에서 피흘리며 싸운 것입니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리하여 로동자들은 공장의 주인으로, 농민들이 땅과 행복한 협동 조합의 주인으로, 어린이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없이 배움의 길을 준 사회주의 조국—이것은 정말 귀중합니다. 때문에 조국해방전쟁 시기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가슴으로 적 화구를 막아 조국을 지켰고 오늘은 조국의 부강 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 가는 곳마다에서 로동자, 농민들이 힘찬 로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무들도 장차 행복한 사회주의 조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조 도언 선생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1분단의 김 국두 동무는 항일 유격 투사들의 애국심을 본받아 아동 혁명단원들 처럼 조국의 참다운 아들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리 양군, 김 영순 동무도 자기가 느낀 것을 이야기했고 어떤 동무는 시 《백두산》을 랑송하였습니다.

조 도언 선생님도 소년단원들의 이야기에 감격하여 유격대에서 부르던 혁명 가요를 불러 소년단원들을 더욱 즐겁게 하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며칠 전부터 오늘의 이 뜻깊은 모임을 서둘러 준비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 위원회와 분단들에서는 항일 유격 투사와의 상봉 모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소설 《만경대》와 《아동 혁명단》에 대한 읽은 책 이야기 모임도 가졌습니다.

제 1분단에서 가진 《김 일성 원수의 어린 시절》이라는 분단 모임은 특히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대 위원회 계획에 의하여 음악 써클에서는 방과 후 짬을 타서 영광스러운 김 일성 원수의 항일 유격대원들이 전투 생활에서 부른 혁명 가요들을 보급시켜 왔습니다.

이틀 전에도 이들은 영화 《백두산이 보인다》를 구경하고 감상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소년단원들은 저마다 호철이처럼 조국을 위해서는 언제나 용감할 것을 마음 다졌습니다.

그리고 대 위원회에서는 오늘의 이 뜻깊은 상봉 모임을 계기로 우리 나라 항일 유격 투사들의 애국심을 담은 벽보 《홰'불》 특간호도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여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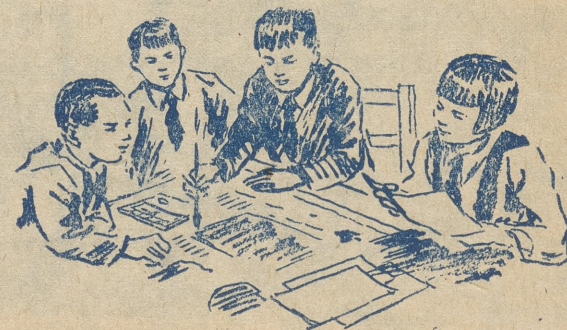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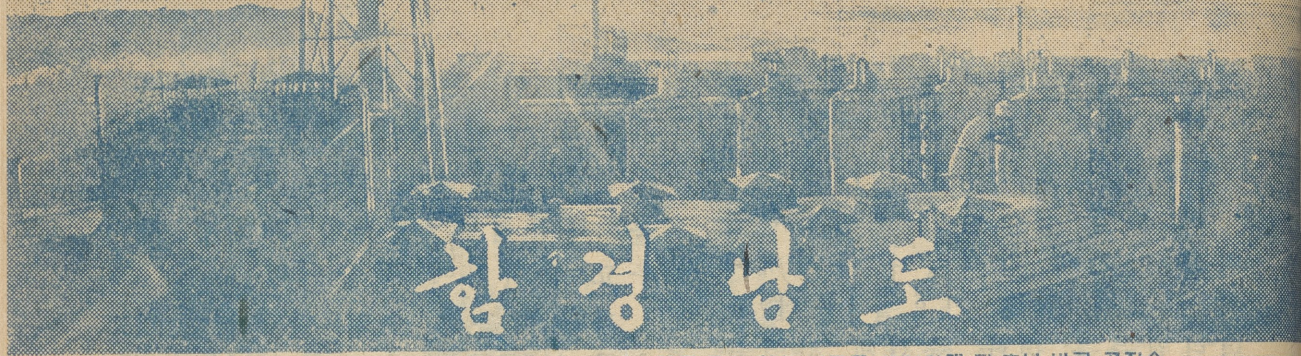
지금 이들은 수령 연구실을 더 훌륭히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김 일성 원수의 어린 시절로부터 항일 유격 투쟁 시기와 해방 후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투쟁 업적들에 대한 스크래프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여 원쑤놈들과 용감히 싸워 이긴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애국 전통을 배워 나가는 이 곳 소년단원들은 저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언제나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열성을 다 하겠다》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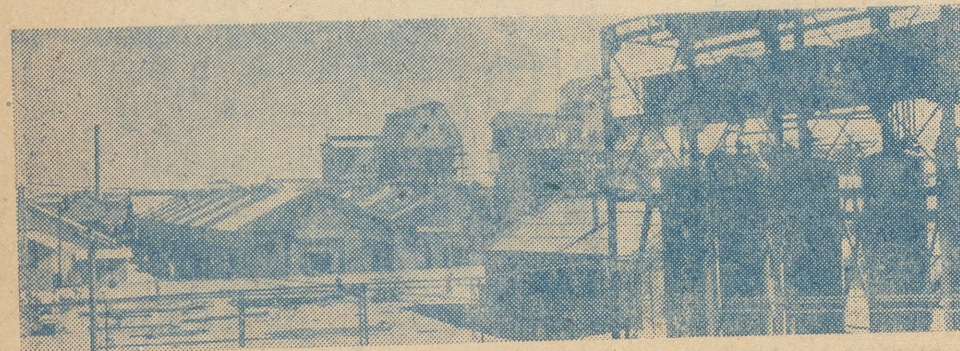
평북도 삭주군 온천 인민 학교 대에서

우리 나라 려행

함경남도

함경남도는 우리 나라 동북 해안의 남부를 차지하는 도이다.

함남도는 서북쪽으로 랑림 산맥과 부전령 산맥, 동북쪽으로는 마천령 산맥을 경계로 자리잡고 있으며 동쪽은 동해에 잇닿고 있다.

함남도에는 우리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흥남 지구의 화학 공업을 비롯하여 전력 생산, 광산 채굴업, 수산업 등 생산 부문이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으며 함주'벌을 비롯한 기름진 평야들에서는 뜨락또르 엔징 소리 요란히 울리고 농촌 마다에서 협동의 노래 소리 들려 퍼지고 있다.

그리하여 함남도의 공업과 농업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61년에 가서는 60만 톤의 화학 비료를 생산하게 될 흥남 비료 공장◇

① 전후 급속히 복구 확장된 흥남 비료 공장에서는 물을 전기 분해하여 얻어진 수소와 공기 중의 질소를 직접 합성하여 암모니야를 생산하고 암모니야와 류산을 화합시켜 류산암모니야를 제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쏘련 인민들의 도움을 받아 건설되는 새로운 질안 비료 제조가 이제 곧 조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금년에만도 8만 톤의 질안 비료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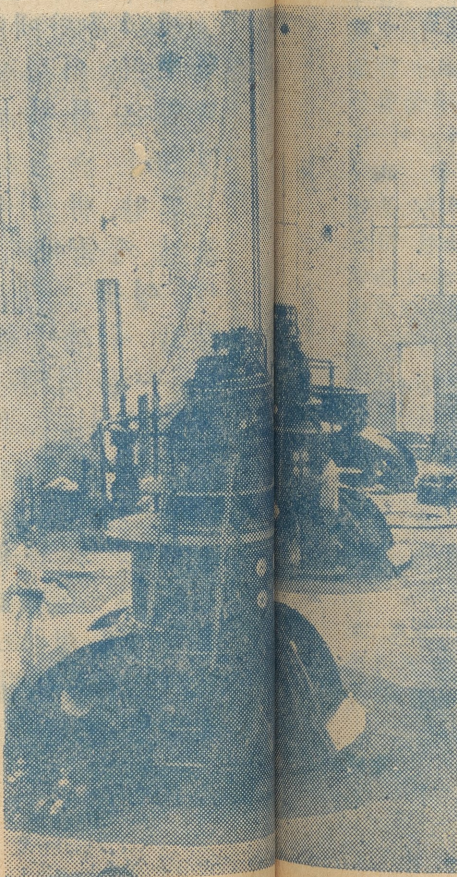
② 본궁 화학 공장에서는 풍부한 전력을 리용하여 석회석과 무연탄을 가지고 카바이트를 제조하며 이 카바이트로부터 석회질소, 합성 초산, 알콜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소금을 전기 분해하여 가성소다, 염산 표백분 등을 생산하며 여러 가지 농약도 생산한다. 앞으로 이 공장에는 질 좋은 화학 섬유 생산을 위하여 초산비닐 공장도 건설될 것이다.

이 밖에 흥남 지구에는 전기 야금 공장으로서 흥남 제련소가 있으며 각종 중형 기계들과 부속품들을 생산하는 룡성 기계 공장도 있어 강력한 중공업 지대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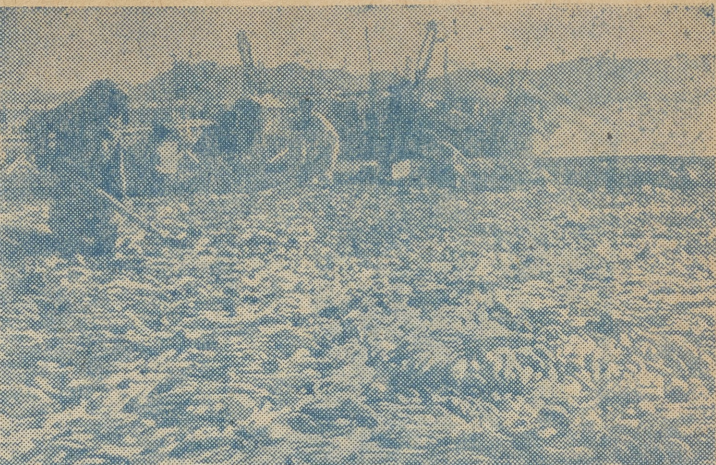
평군 룡성리 내룡
수지 공사장◇

③ 세 개의 발전소—함남도에는 장진강, 부전강, 허천강 발전소 등 세 개의 대 규모적 발전소가 있다. 이 발전소들에서 생산되는 총 능력은 85만 5천 키로와트시에 달한다. 이 전력은 도 내의 흥남 공업 지대를 비롯하여 평북도를 제외한 우리 나라 북반부의 각 도들에 공급된다.

◇장진강 발전부 제 4 호 발전소 제 2호 및 제 3호 발전기◇ →

◇본궁 화학 공장◇ ↓

④ 수산업—함남도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가는 수산업의 도로서 북반부 전체 수산물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 중심지는 신포와 서호, 퇴조, 홍원 등지이고 주요한 수산물은 어류에서 명태, 고등어, 가재미 등이고 해조류에서는 미역, 기타 수산 동물로서는 해삼, 게, 오징어 등이다.

이 모든 수산물 중 가장 많이 잡히는 것은 명태이다. 명태는 이 도의 거의 전 연해에서 잡히는데 전 조선 명태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어획량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제일 높다.

◇사진은 명태로 덮인 신포 수산 사업소 하륙장◇

⑤신포 해어 통조림 공장은 함남도에서 대량적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가공을 위하여 쏘련 인민들의 원조로 새로 건설된 공장이다. 이 공장에서는 금년에 맛 좋은 4천여 톤의 해어 통조림을 생산하게 되며 또한 그의 부산물로써는 어비(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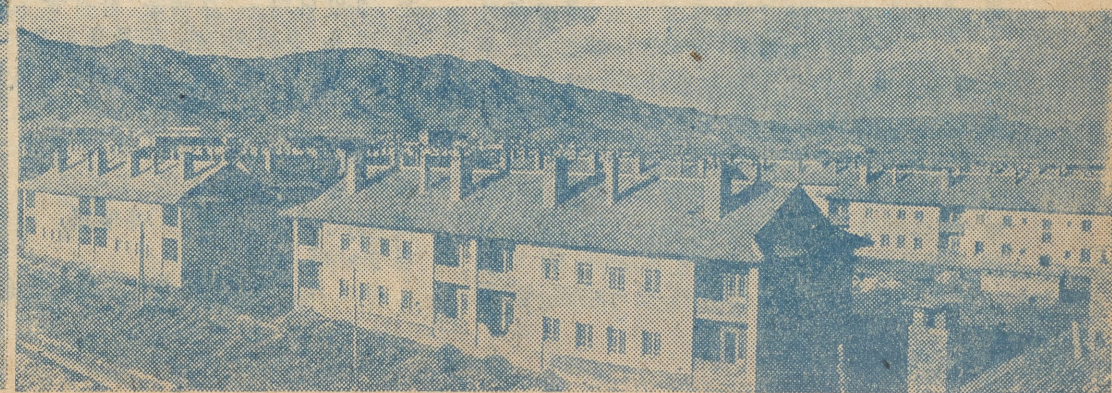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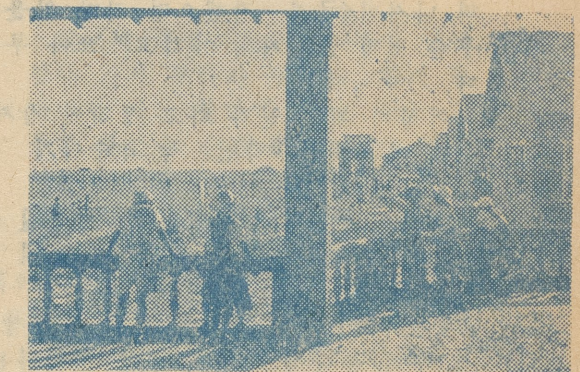
◇신포 어류 통조림 공장◇

◇송후 소년단원 중앙 야영소◇

⑥ 함남도의 농촌은 지난 해 말 현재로 도내 총 농호의 96%가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되여 사회주의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지난 해 36만 톤의 알곡을 생산한 이 곳 농민들은 올해에는 45만 톤의 알곡을 생산하며 가축을 많이 증식시키여 매 농호당 평균 알곡은 2 톤 이상, 현금은 3만 원 이상이 차례지게 하며 돼지는 2 두, 가금은 5 수 이상을 사양하도록 할 것을 내 세우고 그의 실행에 힘차게 나서고 있다.

⑦ 아름다운 도시 함흥시는 함남도 소재지일 뿐만 아니라 동부 조선에서 주요한 문화의 중심지이다. 이 곳에는 화학 공업 대학, 의'과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이 있고 수많은 문화 기관들이 있다. 오늘 함흥시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형제적 원조에 의하여 더욱 더 현대적 문화 도시로서 일떠서고 있다.

◇함흥시 회상동에 새로 건설된 주택 마을◇

지난 1학기가 시작된 어느날입니다.

우리 분단의 조 명식 동무가 영화관 위생실 문을 뜯고 들어 갔다는 소식이 학교에 알려졌습니다.

나는 이 순간 우리 분단 때문에 학교의 명예가 더럽혀졌구나 하는 생각으로 몹시 마음이 안타까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명식이는 나에게 달려 와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 김 동하라는 동무가 문뜩 앞질러 나서며《구경 잘했으면 가만 있을게지 무슨 변명이냐 자식두》하고 쏘아 부칩니다.

어떻게 된 일일가 하고 생각에 잠겨 있는데 복도에서 3학년 곽 복순이가 나를 찾았습니다.

복순이는 동하가 영화관 위생실 문을 뜯고 들어 가는 것을 지나가던 길에 보았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동하도……?!》 나는 분단 위원장으로서 우리 분단에 이런 동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기도 하고 또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로 이 분단에 온 때로부터 나는 동하를 아니꼽게 생각한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동하는 자기 말을 제일 잘 듣는 김 용남이와 몇몇 아이들과만 짝을 지어 다니면서 소년단원 답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말끝마다 이새끼 저새끼 하고 쌍스러운 말만 하고 분단이 떨어나서 일할 때도 자기네들은 책가방을 지켜 준다고 핑계를 대면서 배돌기만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남이 점심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때도 한두번이 아니였었습니다. 이런 몹쓸 행동을 하고도 분단 열성자들이 충고하면 오히려 제가 잘한듯이 주먹을 내둘렀습니다. 열성자들도 이들이 힘으로 내기 하자는 데는 맞설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이니 점심을 못먹게 된 동무들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분단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어서야 되겠는가…》 나는 곰곰히 생각한 끝에 선생님에게 모든 사연을 이야기하게 되였습니다. 그래 우리 열성자들은 방과 후에 동하를 고쳐 줄 데 대하여 의논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열성자들이 동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점을 죄다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열성자들은 서로 힐끗힐끗 바라볼 뿐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이 눈치를 아신 선생님은 동하의 잘못을 고쳐 주어 옳은 사람으로 되게 하는 것은 분단 전체가 할 일이라고 하면서 분단의 힘을 합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때야 열성자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하와 용남이는 그전 담임 선생님이 병으로 나오시지 못하시던 지난 여름부터 굴레 벗은 말처럼 자기들의 힘을 뽐내면서 분단 생활을 하지 않게 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단의 큰 동무들과도 패를 지어 다니면서 학교에서 자기에게 맞서는 동무는 길'거리에서 막 때렸던 것입니다.

그를 고쳐 줄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토의한 끝에 전체 분단 동무들과 열성자들이 단합하여 그들을 타일러 주자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끝내고 교문을 나서자 문뜩 동하와 그의 동무들이 한쪽 골목에서 나타났습니다. 《너희들 모여서 우릴 시비했지! 새로 들어온 자식이 분단 위원장이라구 까불면서》 하고 대들었습니다.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그래 우리가 너희들을 시비했다구 생각하니! 너희들을 돕기 위해 의논했다. 너희들 때문에 교장 선생님까지두 걱정하구 있구, 대 위원회서도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먹을 내 두르며 위협할 뿐 감히 때리지는 못했습니다.

이튿날입니다.

열성자들은 동하 곁으로 모여가 말했습니다. 패를 지어 다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며 분단을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때 동하는《뭐야 패를 지어 다니면 어떻단 말이가, 분단 열성자라면 다가》하고 말했습니다.

《네 행동은 정말 좋지 않아. 네가 얼마나 분단 사업을 방해하고 있니》하고 나는 참을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이 때 동하는 벌컥 일어나며《뭐야 어디 집에 갈 때 보자》하고 을러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우리 열성자들은 이 일은 분단 열성자들 몇명이 애써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방과 후에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분단에 오시게 되였습니다. 이 날 두 선생님은 동하의 잘못을 여러 동무들 앞에서 타일러 주시면서 분단 전체 동무들이 동하를 도와서 고쳐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동하는 여느 때와는 달리 이 날만은 아무 말썽도 없이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는 결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날 분단 모임을 가졌습니다.

나는 우리 분단 동무들이 한마음이 된다면 동하를 얼마든지 고쳐 줄 수 있다는 것과 그의 나쁜 행동을 우리 분단 전체 동무들이 제때에 고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더 나쁜 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분단 동무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였습니다. 분단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이 날 우리 전체 분단 동무들은 동하가 다시 소년단원으로서 자기 영예를 찾도록 전체 분단이 힘을 모아 고쳐 주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녁에 열성자들은 동하의 집에 찾아 가서 동하가 우리와 함께 일한다면 어느 분단에 못지 않는 훌륭한 분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며 래일 꼭 학교에 나오라고 타일러 주었습니다. 동하는 다음 날 학교에 왔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는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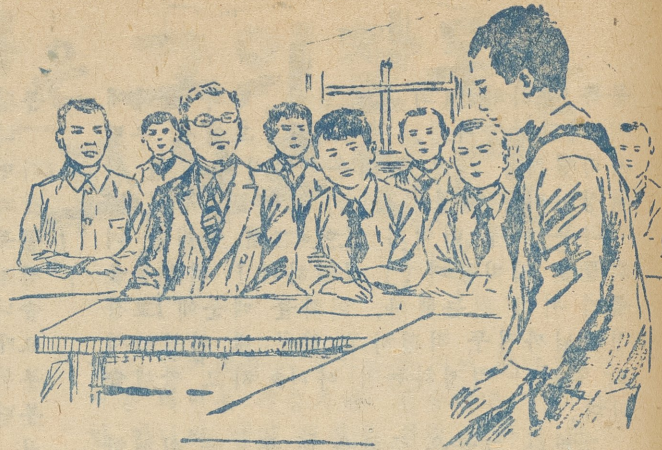
우리들은 동하와 가까이 지내며 그가 자기 잘못을 고치도록 꾸준히 힘쓰면서 《동하를 사랑하고 돕자》라는 모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모임에는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각 분단 위원장들도 참가했습니다.

동하는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동무들이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빨리 고쳐 주자고 한 마음으로 토론하는 것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분단 위원장들이

동하와 같이 밀며 다니는 자기 분단 동무들을 제때에 고쳐 주지 못한 것이 자기 분단의 잘못이였다는 것을 말했을 때 자기 때문에 전체 학교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맨 나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생님이나 열성자들이 타일러 주는 것을 몰아 주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이야 동무들이 나를 고쳐 주기 위해 애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화관 위생실 문을 뜯고 들어간 것도 명식이가 아니고 내가 그랬습니다. 영화관 아저씨가 붙들고 이름을 묻는 바람에 나는 명식이 이름을 불러 댔습니다. 그리고 나는 분단의 폐품 회수로 얻어진 돈도 나의 친한 동무들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선생님에게서 주의를 받은 다음부터는 선생님에게서 칭찬 받는 동무나 또는 선생님의 일을 돕는 동무를 아첨한다고 때렸습니다. 저는 소년단원이라는 것도 잊고 행동했습니다》.

동하의 말을 듣던 우리 분단 동무들은 물론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은 동하가 분단 전체 동무들의 도움으로 소년단원의 영예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분단 열성자들과 분단 전체 동무들은 한마음이 되여 서로 도우며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열성자들은 현재 누구보다 동하와 가장 친합니다.

지금 동하는 우리 분단 동무들이 가장 사랑하는 분단의 축구 주장으로 되였습니다.

황북도 사리원 사전 부속 인민 학교 대
4분단 위원장 리 근호

(작) (문) 일본에 있는 조선 소년들에게

그들의 소식을 알고 싶다

황해북도 사리원시 제 3중 학교 대 제 18 분단 고 려선

나는 얼마 전에 《소년단》잡지 3월호에서 일본 니시와끼 조선 소중학교 3학년 박 곡지 동무의 작문과 일본에 있는 조선 동포들의 생활을 보여 주는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한장의 사진 속에는 공화국 정부에서 보내 준 교육비를 받은 어린이들이 수놓아 새긴 감사문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교육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부터 곤난한 사람도 학교에 갈 수 있겠지요……》

이 글을 읽은 순간 내 눈 앞에는 머나먼 타국에서 사랑하는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그리는 동무들의 모습이 눈 앞에 어렸습니다. 나는 곧시 일본에 있는 조선 소년들을 만나 보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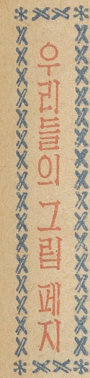
만일 만나면 서로 주고 받을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가!

공화국의 따뜻한 품 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즐기며 나라에서 화려하게 지어 준 우리들의 야영소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여름 방학이며 아름답게 일어서는 우리 고향 아빠트 거리와 날마다 우리의 행복을 크게 하는 공장을, 내가 본 민주 수도 평양의 건설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물어 볼 이야기는 얼마나 많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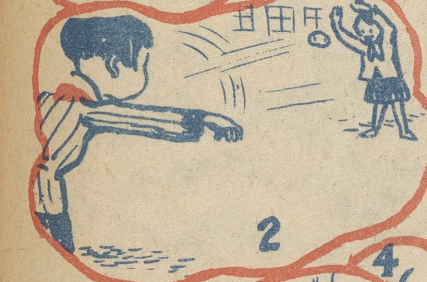
라지오나 신문을 통해서 그들의 소식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며 소년단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본에 있는 우리 조선 동무들의 생활을 알고 싶은 나의 이런 마음을 나는 우리 동무들에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동무들도 모두 나와 꼭 같은 한 마음이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둘러 앉아 어떻게 하면 일본에 있는 우리 조선 동무들의 소식을 더 잘 알 수 있을가 하는 것을 의논했습니다. 혹시 《소년단》잡지에 우리의 이 마음을 실린다면 되지 않을가 하여 이 글을 편집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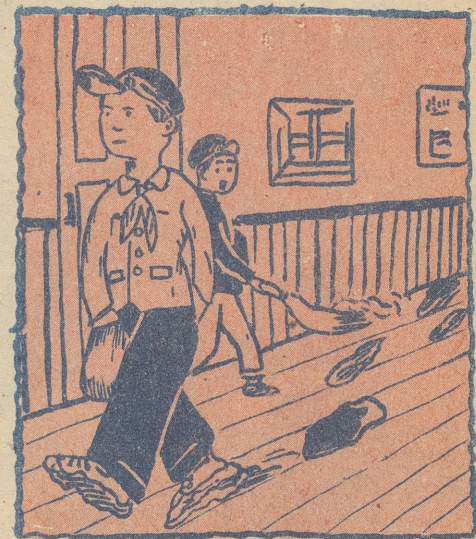
우리들의 그림 페지

《혁명적 애국 전통을 배운다》

개천 초등 학원 4년 박 영 그림

랑비

1 오자미에 콩을 넣어 가지고

2 학교에 와서 던지며 놀다가도

3 돌아올 때에는 어지럽게 되였다고 내던져..

4. 귀중한 콩이 쥐에게만 좋은 《선물》

황남 삼흥 중 학교 제 3학년 고 수정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진흙 신발로 깨끗이 청소한 복도를 아무 꺼리낌 없이 걸어 가는 초급반 소년단원, 어린 인민반 학생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래서야 되겠는가?

평북 운전군 16 중학교
2학년 2반 라 세황 그림

조중 인민의 친선단결은 영원불멸하리!

—피로써 맺어진 영원한 친선—

예로부터 조 중 두 나라 인민은 형제적 사랑 속에 친근히 지내 왔다.

조 중 인민은 벌써 공동의 원쑤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서로 힘을 합쳐 공동 투쟁을 진행하였고 생사를 같이 하며 친선과 단결을 굳게 하였다.

더욱이 세계 평화의 원쑤 미제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우리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중국 인민은 자기의 우수한 아들 딸들을 조선 전선에 보내여 우리를 피로써 원조하였다.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과 어깨를 나란이 하고 싸워 온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영원히 잊지 못할 가지가지 이야기들이 아로 새겨져 있다.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물에 빠진 조선 소년 최 형을 구원해 준 라 성교 아저씨, 그리고 조 원홍을 구원해 준 사 원후 아저씨 등 국제주의 렬사들의 고귀한 정신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는가!

적탄이 비'발 치는 속에서도 부상 당한 인민군 전사 김 의뎍 형님을 구원하려다 희생된 지원군 천 귀화 아저씨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얼마나 극진한 형제적 사랑인가!

그러기에 조선 인민들은 피로써 우리를 도와 준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의 전투 승리를 힘껏 도와 나섰다.

폭탄 속을 뚫고 부상 당한 지원군 아저씨를 구원하고 희생된 조선의 국제주의 렬사 박 재근 할아버지의 투쟁 이야기는 조 중 인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피로써 맺어진 조 중 인민의 형제적 사랑과 친선 단결은 영원 불멸하리라!

① 중국 인민 지원군 부대들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밀려드는 적들을 물리치고 전선의 고지들을 피로써 지키였다.

—◇—

② 지원군 부상병을 구원하는 조선의 국제주의 렬사 박 재근 할아버지.

③ 성천군 라 성교 마을에 서 있는 국제주의 렬사 라 성교 아저씨의 추모비.

④ 지원군 아저씨들은 짬만 있으면 로력을 아끼지 않고 우리 인민들의 일'손을 도와 주었다.

⇧농민들의 밀 추수 운반을 도와 주는 지원군 아저씨.

⇧성흥 광산 주택 공사를 도와 주는 지원군 아저씨들.

⑤학교를 지어 준 지원군 아저씨들을 모시고 정주 초등 학원 소년단원들은 위안 공연을 조직 하였다. ⇨

제일 귀중한 것

◇최 화 규◇

이른 봄 어느 날이다.

《해변'가에 웅장하게 서 있는 저 건물이 바로 흥남 비료 공장이랍니다. 우리들은 저 공장을 두번씩이나 견학 갔댔어요》.

분단 위원장 권 칠용 동무가 먼저 창밖으로 내다 보이는 공장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창문으로는 안개 속에 잠겨 있는 듯한 공장 굴뚝에서 쉼없이 솟아 오르는 연기가 어렴풋이 내다 보였다.

《첫번째 견학에서도 우리는 류안 비료가 생산되는 공정과 로동자 아저씨들의 힘찬 투쟁을 보고 새롭게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번 견학을 또다시 조직하게 된 것은 다만 비료가 생산되는 공정만을 다시 알기 위해서가 아니였습니다. 우리 분단에는 그 때까지도 많은 동무들이 무엇 때문에 공부를 잘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지각과 결석을 자주 하는 일이 있었고 일하기를 싫어하고 뺑소니까지 치는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마침 이 공장 합성 직장 초급 민청 단체에 한 계렬 영웅의 이름이 수여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찾아 가면 우리 동무들에게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할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였습니다》.

이렇게 칠용이는 둘째번 견학의 목적을 길게 이야기하고 나서 계속 견학에서 보고 느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1천 5백 마력의 모타가 수없이 돌아가는 합성 직장에 들어 섰을 때였습니다. 직장장 아저씨는 한 계렬 영웅의 이름을 지닌 영예의 기'발을 보여 주면서 〈우리 민청원들은 이 기'발을 볼 때마다 25만 7천 톤의 류안 비료와 8만 톤의 질안 비료를 초과 생산하려고 앞을 다툰다. 이 기'발에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한 계렬 영웅이 생명을 걸고 고지를 사수하여 조국을 지켰던 위훈이 새겨져 있단다. 우리가 이 영예의 기'발을 어떻게 지니게 되였는가, 그것은 합성탑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국놈이 투하한 시한탄을 해제하려다 희생된 리 종갑, 리 진계 아저씨들의 위훈과 포탄이 작렬하는 그 속을 뚫고 들어가 합성탑에 있는 가스를 뽑아 냄으로써 직장을 고수한 리 종환 아저씨의 위훈을 간직하고 비료 증산에 힘써 왔기 때문이란다. 이 아저씨들은 공장을 놈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생명을 조국에 바친 훌륭한 분들이란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일제 때 조선 로동자들이 희멀건 죽을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와 유해로운 직장에서 11시간 내지 12시간씩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먹지 못해 죽고, 고된 일로 몸이 지치여 병'자리에 눕게 되여 죽군 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만 갔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과 같이 행복한 세상에서 근심 걱정 모르고 자란 우리들의 머리로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우리들은 아저씨들의 말씀을 한 마디도 빼놓지 않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리 종건이가 불쑥 앞으로 나서며 아저씨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아저씨들이 제일 귀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아저씨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우리들이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주의 조국이란다. 만일 우리들에게 사회주의 조국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미국놈들과 싸워 이기지 못했을 것이고 일제 때와 같은 쓰라린 생활을 했을 것이 아니냐! 공장의 주인이 되고 나라의 주인이 된 우리들이 일하면 일 할수록 생활이 향상되여 가는 사회주의 조국이 가장 귀중한 것이란다〉라고 하시는 것이였어요》. 여기까지 말한 칠용이는 종건이를 쳐다 보았다.

말 없이 그 대로 앉아 있던 종건이는 《분단 위원장은 아직 내가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죄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형님들이 눈부시게 일하는 모습을 감명깊게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합성 직장 민청 위원장 최 희선 형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저 형님들은 지난날 전기와 기름을 절약하고 한 사람이 두 개의 기대를 보는 "다기대" 운동에 참가하여 국가 과제보다 7천 9백 5톤의 비료를 더 생산하였다. 그들은 김 일성 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쌀을 생산하는 로동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비료를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농민들은 쌀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고 우리들의 생활은 부유해진다. 때문에 당과 정부에서 중공업을 우선 발전시켜 온 것이 옳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지. 형님들은 당이 부르는 길에서 힘과 지혜 그리고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그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가장 영예로운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더군요.

이 말씀은 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잘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워야 할 내가 한때 모든 일에서 게을리 했으니까요. 그리하여 나는 그후부터 일하기 싫은 때나 공부하기 싫은 때면 아저씨의 말씀을 생각하며 새 결의를 다지군 하였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배우며 일하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나는 지각과 결석을 자주 하던 버릇을 고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였다. 그러자 분단 위원장이 《종건이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무들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하는데 운동장에 모두 모이라는 베루 소리가 《지르릉》 울렸다.

《오늘 룡성 기계 공장을 견학합니다》 하고 분단 위원장은 나에게 말하고 나서 문밖으로 나섰다. 나도 그의 뒤를 따라 문밖으로 나서면서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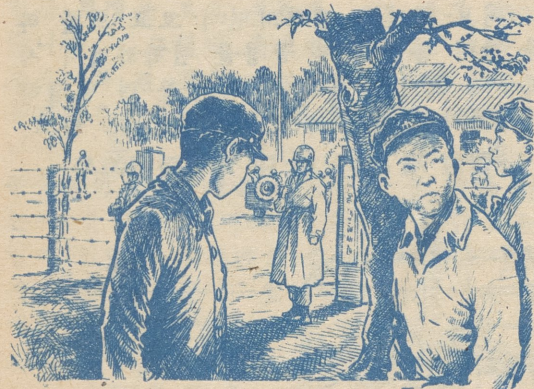
《비료 공장을 견학하면서 보고 느낀 바와 같이 룡성 기계 공장을 견학하면서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을 보고 느낄 것이다》 라고.

—함남 제 3중학교 대 제 2분단에서—

빼앗긴 행복을 찾기 위하여

림 영환 그림

1) 1950년 11월 함북의 명산 칠보산 기슭에 오목히 들어 앉은 포화리—이 마을에 행복을 짓밟으며 원쑤놈들이 기여 들었다.

놈들은 공화국에 충성한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했으며 총을 쏘아 대며 소, 돼지, 닭을 잡아 갔다. 미군의 총칼을 믿고 《치안대》 놈들은 으르렁댔고 쫓겨 갔던 지주놈들은 땅을 빼앗으려고 험상궂게 날뛰였다.

2) 공화국의 품에서 행복하게 배우던 리 태진이와 정 부, 전 길찬 등 그의 동무들은 행복하던 자기들의 마을과 학교가 원쑤놈들에게 짓밟히는 것이 한없이 분하였다.

행복한 배움터이던 학교는 미군놈들의 마굴이 되였다. 일요일이면 춤추고 노래하던 구락부도 놈들의 사무실이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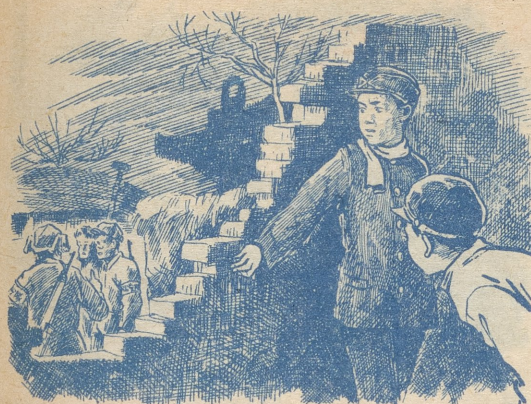
3) 원쑤들에 대한 증오에 가득 찬 어린 투사들은 11월 3일 밤 포화리 뒤'산 깊은 골짜기에 모여 앉았다.

그들 일곱 명은 《빼앗긴 행복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원쑤와 싸우자!》. 말 없이 서로 손을 굳게 잡아 쥐며 맹세했다.

《우선 전화선을 끊자》. 이것은 이들의 첫 공작이였다.

4) 《뭘하는 거야? 전화선 끊는 놈들 빨리빨리 잡아 들여!》. 미군놈들의 불호령이다.

미군놈들과 《치안대》 놈들은 마을을 샅샅이 뒤지고 경비를 강화했다.

그러나 전화선은 밤마다 동강동강 끊어져 나갔다.

5) 놈들의 동정을 살피려고 《치안대》 사무실 쪽으로 나오던 태진이와 정부는 《치안대》 놈들이 떠들썩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뭐! 무수단에?》 한 놈이 묻는 말이다. 《응 여섯인데 인민 군대 해군들이 틀림 없어! 얼른 미군에 알리자!》 하고 벌벌 떠는 놈이 방금 보고 온 놈인듯하였다.

6) 《애, 정 부 넌 얼른 미군 본부로 통하는 전화선을 끊어, 난 무수단에 가서 인민 군대 아저씨들께 알려야겠다!》.

정 부는 재빨리 골목 길을 빠져 나와 어둠 속에서 전화선을 더듬어 내여 잘랐다.

이 때 《치안대》 사무실 쪽에서 전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벅작 고아대는 소리가 들려 왔다.

7) 태진이는 험한 밤'길을 무수단으로 뛰여 갔다. 해안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다.

《누구야 섯!》 바위틈에서 인민 군대 아저씨가 앞을 막아 나섰다.

《아저씨 난 소년단원이애요》. 태진이는 찾아 온 이야기를 했다. 아저씨들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감사하오 소년단원 동무, 더욱 용감히 싸우시오. 이제 곧 인민 군대가 다시 진공해 나옵니다. 그 때까지 잘 싸우시오》, 태진의 가슴은 기쁨으로 높뛰였다.

8) 인민 군대가 오래지 않아 나온다는 기쁜 소식이 동무들에게 전해졌다. 동무들은 이 소식을 삐라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자고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밤마다 전화선을 끊는 외에 삐라를 써 붙이는 새 공작을 시작했다.

삐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굳은 신심을 주었다. 삐라가 나붙은 때로부터 원쑤들은 빨찌산이 내린 것이라고 벌벌 떨기 시작했다.

9) 어린 투사들은 투쟁 속에서 더욱 단련되여 갔다. 그들은 한 달 동안이나 밤마다 전화선을 끊었고 300 매의 삐라를 써 붙였다. 날이 갈수록 더욱 인민들을 못살게 구는 미군놈들과 이렇게 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태진이와 그의 동무들은 무기를 얻으려는 새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놈들의 무기고에 기여들다 태진이가 그만 체포되였다.

10) 태진이는 무서운 고문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총탁으로 때리는 고문도 허공에 달아 매고 부절로 지지는 고문도 이겨냈다.

《빨찌산 있는 곳을 대라. 누가 총을 갖다 달라던? 대기만 하면 너에게 돈도 많이 준다》. 때로는 이렇게 얼리기도 했다. 그러나 태진이는 야무지게 입을 다문채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11) 나흘째 되는 고문에서 태진이는 반죽음이 되여 쓰러졌다.

《태진아! 인민 군대가 수울까지 왔단다. 래일 아침이면 여기도 해방된다. 지금 우리는 네 몫까지 싸우고 있다》하는 소리에 태진이는 정신을 가다 듬고 머리를 들었다. 그것은 정 부 동무가 창'가에 와서 알려 주는 소식이였다.

《인민 군대가…》 아! 얼마나 기다리던 이름이냐!

12) 다음 날 저녁 불시에 콩볶듯 하는 기관총 소리와 함께 인민 군대가 진격해 왔다. 원쑤들의 비명이 울렸다.

태진이는 정 부와 길찬이에게 부축되여 원쑤를 무찔러 진격해 나가는 인민 군대를 맞아 환호에 들끓는 거리에 나왔다.

길찬이가 주는 공화국기를 내흔들며 태진이도 힘껏 만세를 불렀다.

일곱 명 소년단원들의 가슴은 다시 찾은 행복으로 벅찼다.

조쏘 친선사에서 모집한 10월 혁명 40주년 기념
현상 문예 3등 당선 작품

소년소설

잊을수 없는 이야기

◇박 상 준◇

봉수네집 잔디발에는 함박꽃 여러 포기가 서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봉수가 문을 열면 그 함박꽃들이 마치 인사를 하는 듯 방실 웃어 주군 한다나요. 매일 아침 한 송이씩 피여 난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봉수네 집 앞을 지나 갈 때마다 그 함박꽃들을 몹시 부러워한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꽃송이에다 코를 대고 냄새도 살짝 맡아 보고 꽃 잎들을 뚝 뜯어 입에 물고 질근질근 씹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 봉수네 집에 갔습니다. 나는 이 동리로 이사해 온지 얼마 오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에게는 친한 동무가 몇 안됩니다. 봉수와 나는 같은 반인 까닭에 곧 친한 사이가 되였습니다. 게다가 이웃집인 까닭입니다.

봉수는 크거들랑 작가가 되겠노라고 하면서 책을 많이 읽는 아이입니다. 봉수는 이야기도 썩 잘 했습니다. 제가 직접 구경하지 못한 것도 상상하면서 제법 본것처럼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재주가 많았습니다. 그 애는 손'짓과 몸'짓을 해 가며 우수개소리도 잘 합니다.

나는 봉수와 친하게 되자 그 애네 집에 와 있는 창호라는 아이도 잘 알게 되였습니다. 그 아이는 봉수에 비하여 말이 적은 편이며 자기 자랑이라고는 털끝만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을 적엔 빨간 입술 사이로 하얀 옥'이가 드러나며 한 볼에 살짝 보조개가 파지는 아입니다.

창호에게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계시지 않습니다. 저 혼자 뿐이랍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하여 처음엔 무관심하였습니다.

우리 세 동무는 한 집에 모이기만 하면 서로 책 읽은 이야기와 옛'이야기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세 아이 중 봉수는 옛'이야기 선수입니다. 봉수가 웃음 주머니를 툭 터쳐 놓을 때마다 나와 창호는 배를 움켜 쥐고 죽어라 하고 웃어 줍니다. 지금도 나는 입을 헤벌리고 봉수의 입만 쳐다 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봉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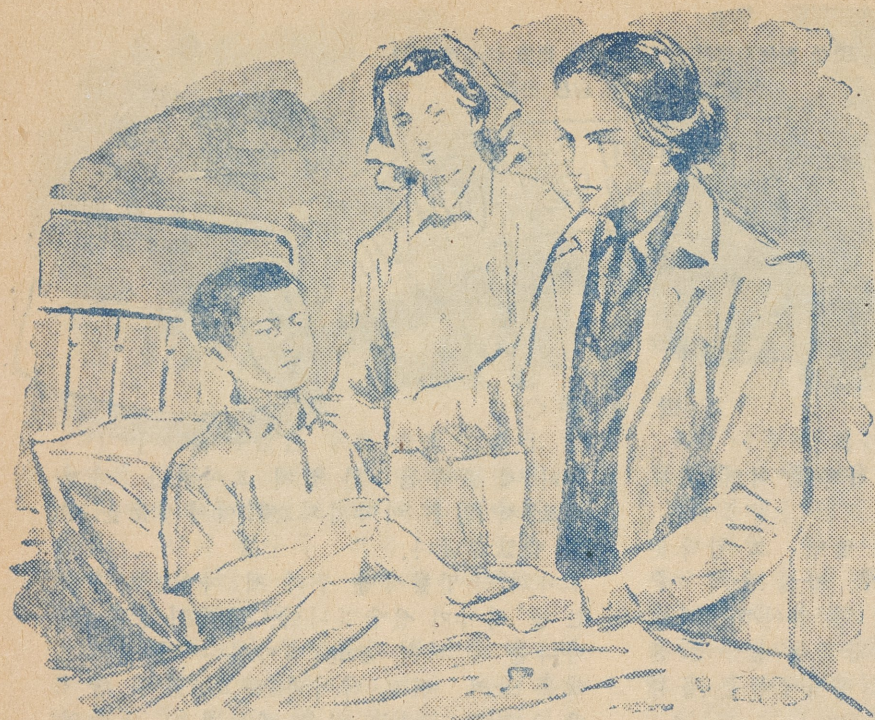
《춘식아 너 저 잔디발에 핀 함박꽃이 곱지?》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별 말을 다 한다는 생각이 들어 《꽃이 곱지 않고 밉겠니?》하고 말했더니 봉수는 눈이 똥그래지며

《… 저 함박꽃엔 정말 깊은 이야기가 있어》하고 정색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색을 하는 봉수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색을 하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긴가 하고 봉수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봉수는 창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어때 창호야 춘식에게도 그 이야긴 알려 줄가?》하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신호를 하는 것입니다. 창호는 한마디 대'구도 없이 고개만 끄떡하였습니다.

봉수는 그제야 내 얼굴을 쳐다 보며 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함박꽃은 말이야 뿌리만 옮겨 묻으면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봄이 되면 꼭 새 싹이 나오는 꽃이란 말이야 그게 다년생 식물이라는 걸 너도 잘 알테지? 하지만 넌 이 꽃에 대하여 아직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을거야. 그 이야기를 할테니 들어 봐라》. 봉수는 이야기

허두를 이렇게 뚝 떼였습니다.

조선 인민군의 영용한 투쟁에 녹아 나기 시작한 미제놈들이 최후 발악을 하던 때이야깁니다.

어느날 적기들은 마을로 날아와 되는대로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 폭탄 중 어느 폭탄이 창호네 집을 눈 깜박하는 동안에 재'더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창호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게다가 억울하게도 다리에 큰 상처까지 입었더랍니다. 사람들이 창호를 발견하였을 때는 정신을 잃은 창호가 재'더미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창호를 거들어 주며 마을 사람들은 원통해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뿌드득 갈며

《개놈의 자식들 같으니라구! 원 이런 법도 있나》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도 기가 막혀 도끼 눈으로 적 비행기들이 사라진 먼 하늘만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사 불성이 된 창호를 들'것에 담아 메고 가까이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토굴 병원입니다. 그 병원은 쏘련 병원이였습니다. 폭탄이 련방 떨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병원을 땅굴 속에 차려 놓은 것입니다.

쏘련 의사들은 뛰여나와 들'것에 담긴 창호를 입원실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주고 받았습니다. 정신이 들자 창호는 그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들은 이 아이는 죽게 되였다고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때 녀의사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를 잘라야 합니다. 다리를 잘라야 이 애는 삽니다》.

후에 통역의 말로 그 말뜻을 안 창호는 기가 막혔습니다.

《뭐 내 다리를 자른다구?…그럼 절름바리가 되지 않나! 이건 꿈에도 상상치 못하던 일이로구나!》.

창호는 억울하였습니다. 놀음에서 늘 으뜸을 하던 자기가 아닌가 륙상 경기 때에도 늘 앞장을 섰던 것이고 축구 시합이나 롱구 시합 때엔 아이들이 모두 선수라고 불러 주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제는 다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창호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안돼, 안돼. 내 다리를 못 자르오》하고 버럭 웨쳐 버렸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냅다 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일어 날 수 없었습니다.

《어린 학생, 너무 안타까와하지 마슈, 그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웨라라고 부르는 녀의사가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난 죽어도 이 다리를 자르지 않겠어요》.

쏘련 녀의사 웨라 선생의 말도 귀에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녀의사 선생도 안타깝던 모양이던지 창호를 껴안고 몇번이고 몇번이고 타일러 주었습니다.

그러나 창호는 《싫어요, 난 싫어요, 난 비행사가 될 터이예요, 그 놈들이 탄 비행기를 모조리 떨구어 버릴 작정이예요》.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착한 학생 너무 그러지 말라니깐 인민군 용사들이 학생 원쑤를 갚아 줘요, 학생은 다리를 잘라야 해요, 안 자르면 생명이 위험해요》. 옆에 서 있던 간호원들도 다리를 잘라야 산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창호의 편을 들어 주지 않는 것이 몹시 안타까왔습니다. 죽은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며 눈물이 쭈르르 흘러 나왔습니다.

《어머니……아버지 난 다리를 안 자를 테야요, 원쑤놈들을 쳐 부실 테야요》.

이렇게 속으로 웨친 순간 그만 악 하고 울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간호원도 웨라 선생도 울었습니다. 녀의사 웨라 선생은 그 순간 모쓰크바에서 어머니 돌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자기 딸 까쨔 생각이 났더랍니다.

《까쨔……그러나 너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아이로구나 보아라 조선의 한 소년 창호는 순식간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빼앗겼다. 그리고 그마저 죽을 지경이 되였다. 이게 모두 미군놈들 때문이다》.

웨라 선생은 창호를 껴 안아 주며

《창호 학생, 우지 마세오 내 다리를 자르지 않고 고칠게》하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이십니까》.

웨라 선생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천진란만한 어린 소년에게까지 이런 불행을 가져다 준 원쑤에 대한 증오의 불'길이 그의 가슴에 타 오른 모양입니다. 그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 애의 다리를 자르지 않고 고쳐 볼 작정입니다. 저 학생의 소원을 꼭 풀어 줄 작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사들은 모두 그와 같은 치료법은 위험한 치료법이라고 반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창호의 다리는 꼭 잘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고 고치자면 부러진 뼈 속에 고름이 생기여 치료하기 어려우며 나중에는 환자의 목숨까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르는 것이였습니다.

그와 같은 다리를 자르지 않고 그냥 수술만 한다는 것은 처음이였습니다.

그러나 웨라 선생의 결심이 너무나 굳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창호의 다리는 자르지 않고 수술만 하게 되였습니다.

창호는 바늘로 쑤시는 듯한 아픔도 잊어 버리고 죽어라하고 꾹 참았습니다.

그러나 녀의사 웨라 선생은 불안한 마음에 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패할지도 모를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이럭 저럭 일개월이 지나 갔을 때입니다. 창호의 다리는 좀 나아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병원에 몇 달이나 있어야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 무렵에 나(봉수)는 일요일 마다 병원으로 창호를 찾아 가군 했습니다. 토굴 지붕에 늘어진 밤나무 가지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이 삐이삘리리 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울려 오는 적 비행기들의 폭음이 그 새들의 노래 소리를 삼켜 가군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날 내가 창호를 찾아 갔을 때입니다. 웬일인지 창호의 얼굴은 쓸쓸하였습니다. 난 가슴이 선뜻하여 나아가던 다리가 더지는 것이 아닌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 며칠 후에 웨라 선생이 쏘련으로 돌아 간다고 말하면서 나직히 한숨을 쉬였습니다. 그 때 웨라 선생이 창호의 곁으로 왔습니다.

《학생 아픕니까?》.

창호의 심상치 않아 뵈는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창호는 주저주저 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정말 고국으로 돌아 가십니까?》.

《네 며칠 있으면 가게 될 것입니다》. 창호는 시무룩한 얼굴로 창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웨라 선생은 애정에 찬 눈으로 창호를 바라 보며

《학생 우지마세요 자꾸 울면 다리가 낫지 않습니다》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창호의 눈물은 멎지 않았습니다. 그 때입니다. 웨라 선생 얼굴에 결심의 빛이 떠 올랐습니다.

《저 학생 다리도 못 다 고치고 내가 돌아 가다니, 어찌 저 학생에게 슬픔을 안겨 준담, 까짜는 몇달 후에도 안아 볼 수 있지 않나. 저 학생을 그냥 두고 가서는 안돼. 부모마저 빼앗긴 학생이 아닌가. 저 학생을 꼭 완치시킨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 가자 공작이 끝났지만 기한을 연장하여 달래자》.

웨라 선생의 얼굴은 빨간 능금알처럼 타더니 와락 달려 들어 창호의 얼굴에 자기의 뺨을 비비여 주었습니다.

가을도 가고 겨울도 지난 어느 봄날이였습니다. 상처 입었던 창호의 다리도 쏘련 녀의사 웨라 선생의 뜨거운 사랑과 정성으로 하여 완쾌되였습니다.

웨라 선생도 지팽이도 짚지 않고 척척 걸어 다니는 창호를 보고 어머니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창호가 퇴원하던 날 나는 삶은 고구마 한바구니를 웨라 선생에게 감사의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나는 웨라 선생에게 절을 꼬박꼬박 하고 또 했습니다. 갈 곳없는 창호는 우리 집에 와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창호와 나는 친 형제가 되여 서로 먹어라 입어라 하며 친절하게 지냅니다.

웨라 선생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 가기 바로 전 날 저녁에 자기 집 마당에 심어 놓고 즐기던 함박꽃 여러 포기를 정성껏 떠다가 우리 집 문 앞 금잔디 판에 심어 주었습니다.

웨라 선생은 조국으로 돌아 가는 날 인제는 친 형제가 된 나와 창호의 손을 꼭 쥐고 등까지 도닥도닥 두드려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동무들 우리 서로 잊지 맙시다. 나는 너무 섭섭해서 내가 제일 고와하던 이 꽃을 이 마당에 심어 주고 갑니다.

물 주고 거름 주고 벌레 잡아 주며 길이 꽃피도록 가꾸십시요. 뿌리만 떠 옮기고 두틈하게 흙만 덮어 주면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사는 꽃이지요》.

그 때부터 나와 창호는 이 꽃을 몹시 사랑합니다.

언제나 이 꽃을 보면 꽃송이마다 웨라 선생 얼굴로 보여 주어 좋고 기운이 솟아 나는 것 같아 좋은 꽃이랍니다.…

나(창식)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울었습니다. 나는 창호와 봉수의 손을 와락 달려 들어 쥐며 말했습니다.

《야! 정말 보통 꽃이 아니구나?

꽃에 얽힌 이야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이야기구나》.

그 때입니다. 창호가 후닥닥 일어나 문밖으로 뛰여 나가며 맑은 목소리로 웨쳤습니다.

《우리 저 함박꽃 피여 있는 잔디밭까지 누가 먼저 뛰여 가나 내기 하자! …》.

《그래 그것 참 좋다!》.

우리들은 어느새 마당으로 뛰여 나가 함박꽃 핀 잔디밭 언덕을 향하여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등은 창호 이등은 봉수, 삼등은 나………내가 끝찌입니다.

우리들은 두 손들을 쩍 벌리고 숨을 길게 쉬는 호흡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참 즐거운 날입니다. 예쁜 새들도 푸른 하늘에서 노래 부르는 날입니다.

함박꽃들은 아름다운 향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씨름이나 한번씩 해 보자꾸나!》

하고 이번엔 봉수가 말했습니다.

《그것두 좋지》. 나는 제법 씨름깨나 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너하고 창호하고 먼저 해 보아라》. 나는 쟁긋 웃는 창호의 얼굴을 쳐다 보고 나도 마주 웃었습니다.

《해볼가… 그럼》.

창호가 말했습니다.

《팡 멧다치면 안돼》. 내가 말했습니다.

창호와 나는 처음으로 씨름을 했습니다. 그만 나는 창호의 공중 배재기에 떠워서 쿵 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봉수는 넘어진 나를 쳐다 보며

《지붕에서 호박이 쿵 떨어지는 것 갈구나》하고 말하는 바람에 우리들의 웃음'보는 짝짜그르 터졌습니다.

친선의 선물

수업 시간이 끝나자 곧 집합 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웬 일일가?》하며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안내로 군 인민 위원회 부위원장 선생이 단에 오르셔서

《동무들에게 친선의 선물이 왔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야 공화국 내무성 까르로비바리 안전부원 아저씨들이 동무들에게 라지오를 보내 주었습니다.》하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치며《야! 야!》하고 기쁨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저씨들이 보낸 편지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 온 조선 전재고아들로부터 동무들의 부모들이 지난 조국 해방 전쟁 때 조국을 지켜 미제 원쑤놈들과 얼마나 용감하게 싸운 애국자였는가를 잘 알았습니다. 동무들도 동무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훌륭한 애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동무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동무들은 우리 나라에도 동무들의 친우들이 있고 부모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동무들의 문화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적은 선물을 보냅니다》.

우리는 편지를 읽고 친선의 정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는 라지오를 안고 소년단 실에 뛰여 들어가 곧 보기 좋은 곳에 올려 놓고 스위치를 틀어 놓았습니다. 때마침 라지오에서는 어린이 시간 방송이 울려 나왔습니다.

모여 앉은 모든 동무들의 얼굴에는 친선의 선물을 받은 기쁨과 함께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될 굳은 결심들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친선의 편지를 보내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함남 제1 초등 학원
대 벽보 주필 박 태남

그들은 훌륭한 일을 했다

어머니는 생선 장사를 그만 두고…

제 1 분단에서는 《우리도 사회주의 건설을 돕자》라는 모임을 가진 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6 반 동무들은 수산 협동 조합과 수산 사업소를 견학하였고 돌아 와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우리 나라》라는 이야기 모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까지 참가시키고 수산 협동 조합에 든 집과 개인 생선 장사를 하는 집을 비교해 보는 《누구의 집이 더 잘 살게 되였는가》라는 모임도 가졌습니다. 그리면서 이들은 꼬마 선전원의 역할을 높여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하여 부모들에게 선전했습니다.

지난 날 농사도 하며 어업도 하던 광준, 상섭, 호일 동무의 어머니들이 협동 조합에 들게 된 것도 이들의 이와 같은 노력이 컸습니다.

그런데 6 반에서 홍산이의 어머니만은 아직도 녀자 손 혼자라는 데서 협동 조합에 들기를 망서리며 개인 농업에 개인 생선 장사를 겸하여 하고 있었습니다.

홍산이 어머니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함께 고기 장사를

하시던 어머니들이 한집 두집 줄어 가고, 협동 조합에 들어간 집 살림이 날로 피여 가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요.

홍산이는 자주 어머니에게 내각 결정 104 호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글쎄 걱정 말아, 남이 모두 들 때면 나도 들어 가겠다》 어머니의 고집은 처음보다 점점 누그러 갔습니다.

2 학기를 며칠 앞두고 홍산이네 집에서 반 모임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모임에서는 방학간 반 사업을 총화 지으며 꼬마 선전원으로서 부모들에게 사회주의 건설에 대하여 선전한 일도 이야기되였습니다.

아래'방에서 이들의 말을 듣고 계시던 어머니는 《나도 래일부터 협동 조합에 들기로 작정했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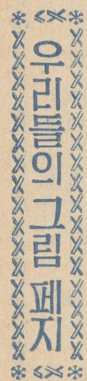
반 동무들은 《야! 우리 반은 그럼 모두 협동 조합 식구가 됐구나》하며 기뻐했습니다.

2 학기 첫날 홍산이네는 점심을 두 그릇 쌌습니다. 하나는 홍산이의 것 또 하나는 대만춘 수산 협동 조합에 첫 출근하시는 어머니의 것입니다.

함남 신창군 만춘 인민 학교
리 치우

작 업 할 때

평양 사범 대학 부속 고급 중학교
초급반 2학년 2반 김 창민 그림

그들은 훌륭한 일을 했다

그의 어머니는 미신을 믿지 않게 되였다

우리 학교 대 모범 분단인 제 4 분단 위원장 차 춘자 동무는 자기 어머니가 20 년 동안이나 믿어 오던 미신을 믿지 않도록 하게 한 동무입니다.

그런데 춘자 어머니는 집에서 누가 앓아도 병원에 가지 않고 무당을 불러다 《굿》을 하면 된다고 믿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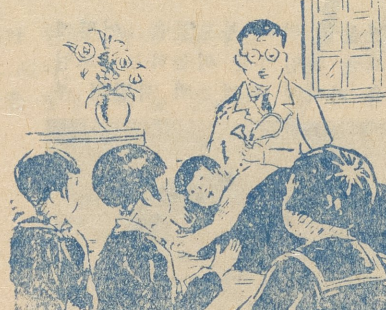
학교에 다니면서 미신이란 거짓 말이라는 것을 배운 춘자는 어머니에게 미신을 믿지 않도록 책에서 본 이야기며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를 자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좀체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자가 자주 기침을 하며 앓아 눕게 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춘자더러 귀신을 자주 욕하더니 벌을 받았다고 꾸중을 하시며 《굿》을 해야겠다고 서둘렀습니다.

춘자는 《굿》을 못하도록 끝끝내 막아 냈습니다.

저녁 때 그의 동무들이 놀러 왔다가 춘자가 앓는 것을 보고 의사를 모셔 왔습니다. 의사 선생은 주사를 놓고 감기약을 주고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춘자는 차차 나아 갔습니다. 다시 학교에 나

온 춘자는 동무들과 의논하고 자기 집에서 《미신은 우리에게 해를 주는 원쑤》라는 제목으로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모임에 어머니도 참가했습니다.

동무들은 모임에서 미신이 어떻게 생겨 났는가를 밝히고 미신은 거짓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춘자의 병이 나은 것도 약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마을에 기여든 원쑤 미군 놈들이 춘자 아버지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도 하느님의 벌을 받아 죽은 것이라고 하던 이야기를 하면서 미신도 바로 이렇게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며 우리를 속여 우리의 생활에 해를 끼치는 무서운 원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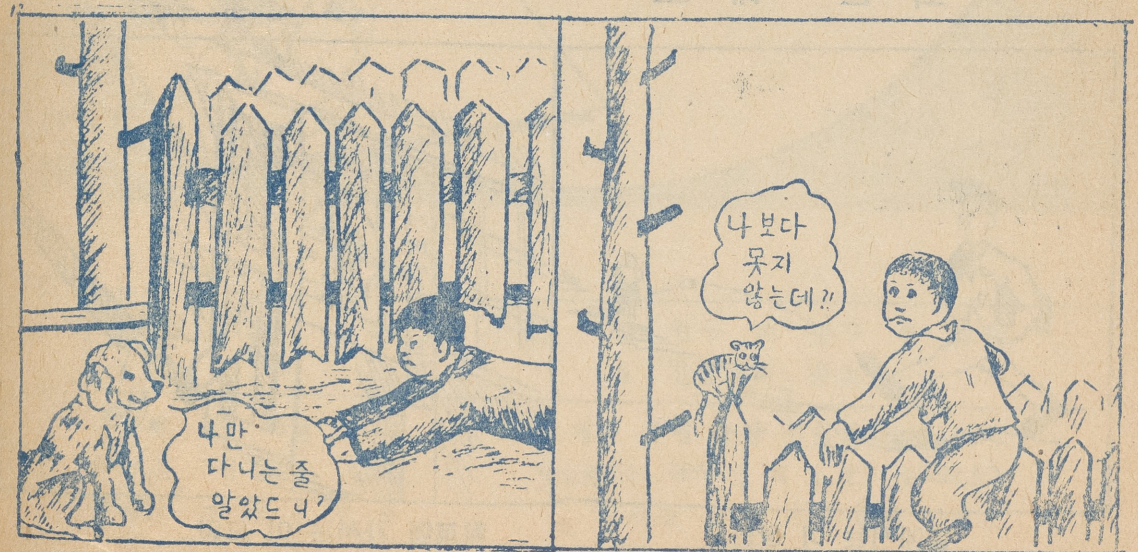
듣고 계시던 춘자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점점 깨닫는 것이 있는 듯 머리를 끄덕이시더니 《그럼 무당들이 하는 일도 거짓이냐?》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요. 무당은 미신을 믿는 사람만 찾아 다니며 속여서는 제 배를 불리는 나쁜 사람이예요. 그 뿐만 아니라 미군 간첩들이 무당으로 가장하고 들어와서 우리의 행복한 생활을 빼앗으려고 날뛰여요》.

《에유 나도 미신을 믿다가는 그 놈들에게 속을번 했구나》.

기지 않으면 넘는다

신의주 녀자 고급 중학교
초급반 장 운섭 그림

그들은 훌륭한 일을 했다

춘자 어머니는 차차 우리의 말을 깨닫게 되였어요.

그 후에 춘자는 어머니에게 신문이나 잡지에 나는 과학 이야기를 늘 읽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춘자 어머니는 춘자가 가끔 우스개로 미신에 대해 말하면 《나도 안다. 미신은 거짓이란 걸》하며 웃으시군 한답니다.

함남 인흥군 진수 중학교 대
진 동섭

혜자 동무의 할머니를 도와서

내각 결정 104 호가 나온지도 석달이 지난 어느날이다. 학교에서 돌아온 송 혜자 동무는 할머니가 또 엿을 다리느라고 애쓰는 것을 보았다. 그처럼 타일렀는데도 할머니는 남몰래 엿을 다려서는 팔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가 화학 공장 로동자로 있기 때문에 살림에는 아무 걱정도 없는데 할머니는 무엇때문에 국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일가?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일이였다. 혜자 동무는 할머니에게 다시금 내각 결정 104 호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렸다. 그 후 며칠이 지나서다. 때마침 분단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부모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의논하는 모임을 가지게 되였는데 특별히 부형들까지 참가시키기로 되여 있었다.

모임 날에 혜자 동무는 설레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모셔 왔다.

모임이 시작되자 분단 위원장 류 부자 동무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낮과 밤을 이어가며 일하고 계시는 로동자, 농민들의 힘찬 로력 투쟁을 소개한 다음 내각 결정 104 호가 가지는 의의를 이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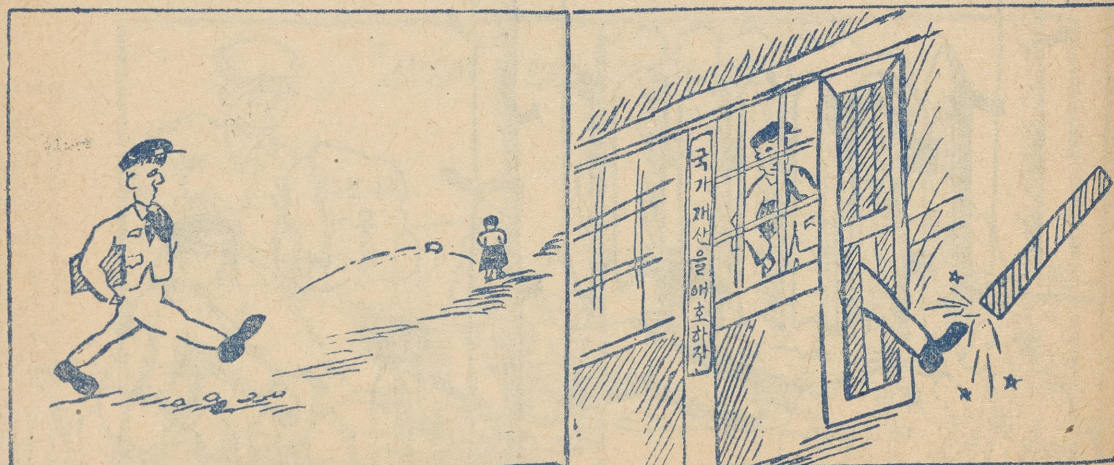
뒤'이어 많은 동무들이 개인 장사를 하는 부모들이 하루 속히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야겠다는 이야기며 우리 부모들 가운데는 아직도 떡과 술, 엿을 해서 가만가만히 파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인민의 살림살이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 살림에 큰 해를 줄 뿐 아니라 나라의 법을 어기는 일이므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꼬마 선전원 사업을 잘 해야겠다고 하였다.

이 날 혜자 동무의 할머니는 연신 머리만 끄덕이고 앉아 계시더니 그 후부터는 떡을 하거나 엿을 다려서 시장에 내다파는 일이 다시는 없게 되였다.

평북 정성 제 6중 학교
제 3 분단에서

되는 대로

함남 영흥 제 1 고급 중학교
장 태규 그림

길에서는 이 장난, 학교에 가서는 이 모양.

유희

줄 먼저 당기기

5~6메트르의 거리를 두고 직경 50 센치메트르의 원을 두 개 그린다. 그리고 두 개의 원에 건너 놓일 새끼줄을 놓는다. 경기를 하는 두 어린이는 원 안에 서게 된다.

신호에 의하여 두 어린이는 상대방의 원을 더 빨리 돌아 와야 한다. 자기 원에 돌아 와서는 끈을 잡아 당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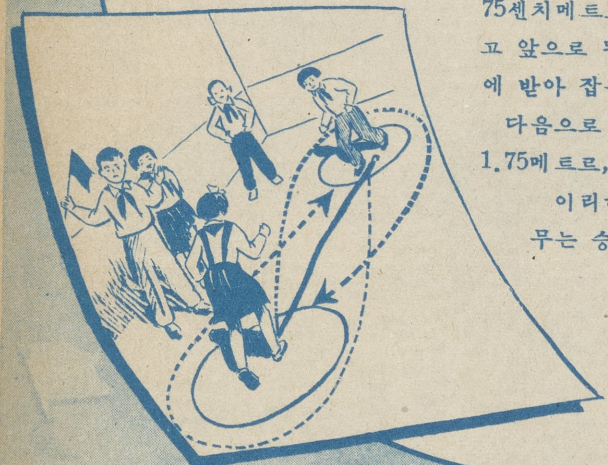
이리하여 먼저 끈을 잡아 당기는 편이 승리자로 된다.

승리자는 다음 경쟁자와 또 경기를 하게 된다.

공 던져서 잡기

높이 2.5메트르의 두 장대기 사이에다 그림과 같이 노끈을 수평으로 맨다. 그 장대기로부터 75센치메트르 떨어져서 공을 노끈 넘어로 던지고 앞으로 뛰여 가서 그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 잡는다.

다음으로 1메트르, 1.25메트르, 1.5메트르, 1.75메트르, 2메트르 등 등…

이리하여 제일 먼 거리에서 수행한 동무는 승리자가 된다.

편집 위원 김 주현(주필) 리 원우 리 동무 송 정우 신 진균 최 윤호

1958년 3월 1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8년 3월 22일 발행 《소년단》 1958년 제 4 호 (총102호)
발행소 민청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840 값 25원 80,000부 발행

사랑하는 조국의 산과 들을 푸른 락원으로!